

성경연구 제10-2호

고린도후서

총회성경연구소
KOSIN BIBLE INSTITUTE

2023년 9월

통권 제10-2호 고린도후서

발행인 김하연

편집인 송영목

발행처 총회성경연구소

인쇄 2023년 9월 12일

발행 2023년 9월 12일

/

고린도후서

/

목 차

.

/ 고린도후서 본문비평 / 4

주기철 교수(Ph.D., 고신대학교, 신약학)

/ 고린도후서의 배경 / 16

김 원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외래교수)

/ 고린도후서 해석과 강해 / 36

황원하 박사(Ph.D., 신약학, 산성교회 담임)

/ 고린도후서의 이슈와 난제 / 53

변종길 은퇴교수(고려신학대학원 은퇴교수)

고린도후서 본문비평

주기철 교수
Ph.D.
고신대학교
신약학

들어가면서

본 글에서는 GNT 5판을 근거로 사본의 통일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본문비평 등급 {C}와 {D}에 해당하는 고린도후서 본문 10 구절(1:10, 14; 2:1, 5:3; 7:8; 8:7, 19; 11:3; 12:7, 15)을 중심으로 원본 추적 및 사본 경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본문비평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두 개의 큰 구분인 비평사본과 다수사본으로 분류하여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한글 번역본인 개역개정과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펴낸 새한글성경(신약과 시편), 그리고 필요할 경우 영어성경 중에 몇 가지(ESV; KJV; NASB; NIV; NLT)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번역이 무엇인지 제안할 것이다.

1. 본문비평과 번역 제안

1.1. 고린도후서 1:10 {C}

⌘ A C D² Ψ Byz : ὅτι καὶ ἔτι

P⁴⁶ B D* : καὶ ἔτι

D¹ 6 104 1852 : καὶ ὅτι

『개역개정』: 또한 이후에라도

『새한글성경』: 앞으로도 또

본 구절의 경우 ⌘와 A, 그리고 C와 Ψ 외에 Byz은 ὅτι καὶ ἔτι로 기록된 반면, 이른 사본인 P⁴⁶과 B, 그리고 D*는 καὶ ἔτι로 기록되어 있다. D¹과 6, 그리고 104와 1852 외 몇 사본은 καὶ ὅτι로 읽지만 이 경우는 덜 지지를 받는 듯하다. 첫 두 이문 가운데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운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어떤 이는 더 오래된 이문이 어색하고 반복적(awkward and repetitive)이라는 원리에 근거하여 두 번째 이문이 그렇다고 본다.¹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또 다른 이는 첫 번째 이문이 더 어색하고 반복적이기에 더 원본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다.² 비록 두 번째 이문이 더 오래된 사본의 지지를 받기는 하지만, 첫 번째 이문도 그에 못지않을 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앞선 동사 ἡλπίζαμεν와 마지막 동사 ῥύσεται사이에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ὅτι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기에 첫 번째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울 듯하다.³ 번역은 “[그가 우리를] 계속(여전히)

1 참고. R. P. Martin, 2 Corinthians (Waco, Texas: Word Books, 1986), 13.

2 참고. M. E. Thrall,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Edinburgh: T&T Clark, 1994), 121; M. J.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152.

3 Thrall,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122. 쓰랄은 “만약 원본에 ὅτι가 없었다면 왜 그것이 추가되어야만 하느냐?”라고 물으며 첫 번째 이문을 지지한다.

[구원하실] 것임을”로 할 수 있다.⁴

1.2. 고린도후서 1:14 {C}

ⲛ B F G P 0150 0243 33 81 :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P^{46vid} A C D Ψ 075 Byz : τοῦ κυρίου

『개역개정』: 우리 주 [예수]의

『새한글성경』: 우리 주 [예수님]의

본 구절의 사본을 비교해 볼 때, ⲛ*와 B, 그리고 F와 G 등은 ‘우리의’(ἡμῶν)라는 표현을 포함하지만, P^{46vid}와 A, 그리고 C, D, Ψ 등과 소문자 다수사본(Byz)은 오히려 이 표현을 생략한다. 어떤 이들은 필사자들 사이에서는 신적인 호칭 (divine title)을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생략한 두 번째 이문이 원본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우리 주 예수’(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라는 표현은 당시 예배에서 사용되던 관례적인 표현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문을 선호한다.⁵ 바울 서신에서 두 표현 다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외적인 증거를 볼 때 대부분의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서방 사본(F,G)의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형식의 희귀성을 볼 때(rarity of the formula), 첫 번째 이문이 옳을 듯하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로 번역할 수 있다.⁶

4 영어 번역본 중에서 첫 번째 이문을 따라서 관계대명사(that)를 넣어 번역하는 것은 ESV; KJV; NIV등이 있고 두 번째 이문을 따르는 것은 NASB와 NLT 등이 있다.

5 Thrall,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135.

6 참고.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184.영어 번역본 중에 첫 번째 이문을 따라 ‘우리의’(ἡμῶν)를 포함시키는 것은 ESV; NASB 등이 있고 두 번째 이문을 따라서 ‘우리의’(ἡμῶν)를 생략하는 것은 KJV; NIV; NLT 등이 있다.

1.3. 고린도후서 2:1 {C}

P⁴⁶ B 0223 : γάρ

ⲛ A C D¹ F G Ψ Byz : δέ

D* : τε

『개역개정』: [번역하지 않음]

『새한글성경』: [번역하지 않음]

본 구절의 첫 단어를 보면, P⁴⁶과 B, 그리고 0223과 같은 사본은 ‘가르’(γάρ)로 시작하지만, ⲛ와 A, 그리고 C와 D¹, F, G, Ψ 및 Byz 등의 사본은 ‘데’(δέ)로 시작하고, D*는 ‘테’(τε)로 시작한다. 영어 성경의 경우 이례적으로 NIV와 NLT는 ‘그러므로’(so)로 번역했고, KJV와 NASB는 두 번째 이문을 따라서 ‘그러나’(but)로, ESV는 ‘왜냐하면’(for)으로 번역한다. 사본 상 어떤 이문이 원본에 가까운 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외증을 볼 때 가장 어려운 이문이면서 이른 시기의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후기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다양한 사본들의 지지를 받는 첫 번째 이문이 원본에 가까운 듯하다.⁷ 또한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첫 번째 이문이다. 왜냐하면, 앞선 구절(1:23-24)에서 밝힌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아끼기 위해서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고 밝히는데, 여기서 다시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서 그와 같이 한 이유를 밝히기 때문이다.⁸

7 참고.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210.

8 영어 번역본에서는 첫 번째 이문을 따라 ‘왜냐하면’(for)로 번역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ESV), ‘그러나’(but)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고(KJV; NASB), 어떤 번역본은 ‘그래서’(so)로 번역하기도 한다(NIV; NLT).

1.4. 고린도후서 5:3 {C}

D^{*}, c it^{ar}, d, f, v, r, g, o : ἐκδυσάμενοι

F G : ἐκλυσάμενοι

P⁴⁶ Ⲙ B C D² Ψ Byz : ἐνδυσάμενοι

『개역개정』: 이렇게 입음은

『새한글성경』: [이 천막을] 벗어 버리더라도

본 구절은 세 개의 다른 단어가 포함된 사본들이 있다. 먼저 D^{*}, c와 it^{ar} 외 몇몇 사본은 ‘벗다’(put off)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부정과거 분사형인 ‘에크뒤사메노이’(ἐκδυσάμενοι)로 기록한다. F와 G같은 사본은 ‘희미하다’(to loose) 라는 의미의 ‘에크뤼사메노이’(ἐκλυσάμενοι)로, P⁴⁶과 Ⲙ, B와 C, 그리고 D², Ψ, Byz와 같은 사본은 ‘입다’(put on)을 의미하는 부정과거 분사형인 ‘엔뒤사메노이’(ἐνδυσάμενοι)로 기록한다. 어떤 이는 첫 번째 이문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tautology)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본 상의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은 세 번째 이문이기 때문에 ‘입다’(ἐνδυσάμενοι)를 포함하는 것이 원본에 가까운 듯하다. 번역은 “[참으로 그것을] 입는다면”으로 할 수 있다.¹⁰

1.5. 고린도후서 7:8 {C}

Ⲙ C D¹ F G Ψ 075 Byz : βλέπω γάρ

P^{46c}, 117 B D^{*} it^{ar}, b, d : βλέπω

9 Martin, 2 Corinthians, 97.

10 참고. ESV; KJV; NASB; NIV; NLT와 같은 영어 번역 성경은 모두 ‘입다’(put on; clothe)로 번역한다.

P^{46*} vg Pelagius : βλέπων

『개역개정』: [후회하지 아니함은] … 앞이라

『새한글성경』: [그 편지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본을 비교해 볼 때 \aleph 와 C, 그리고 D¹, F, G, Ψ , 075, Byz과 같은 사본은 직설법 동사인 ‘블레포’(βλέπω)와 접속사 ‘가르’(γάρ)를 포함한다. 그러나 P^{46c}, 117과 B, 그리고 D^{*} it^{ar}, b, d 등의 사본은 ‘블레포’(βλέπω)만 포함한다. 이에 반해 P^{46*}와 vg, 그리고 Pelagius 등의 사본은 분사형태의 ‘블레폰’(βλέπων)을 포함한다. 어떤 이들은 필사자들이 βλέπων에서 ν를 빼먹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세 번째 이문이 원본에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본 상의 지지를 가장 덜 받기에 그럴 가능성이 적다. 이 구절은 단어뿐 아니라 구두점(punctuation)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가장 광범위한 사본 상의 지지를 받는 첫 번째 이문을 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번역은 “왜냐하면 [그 서신이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¹¹

1.6. 고린도후서 8:7 {C}

P⁴⁶ B 0243 : ἡμῶν ἐν ὑμῖν

\aleph C D F G Ψ 075 Byz : ὑμῶν ἐν ἡμῖν

2464 170 : ὑμῶν ἐν ὑμῖν

263 : ἡμῶν ἐν ἡμῖν

『개역개정』: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새한글성경』: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11 참고.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533. 영어성경의 경우 대부분(ESV; KJV; NASB; NLT)는 ‘왜냐하면’(for)를 포함하지만, NIV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본 구절은 다양한 이문이 존재하는데, 가장 덜 지지를 받는 것은 세 번째 것인 ὑμῶν ἐν ὑμῖν과 네 번째 것인 ἡμῶν ἐν ἡμῖν이다. 이를 제외하면 먼저 가장 오래된 사본중 하나인 P⁴⁶과 B, 그리고 0243 등이 지지하는 ἡμῶν ἐν ὑμῖν과 **κ**와 C, 그리고 D, F, G, Ψ, 075, Byz 등의 지지를 받는 ὑμῶν ἐν ἡμῖν이다. 후자의 경우가 더 간소한 읽기(simpler reading)로 여겨지고 전자가 더 어려운 읽기(difficult reading)로 여겨지기 때문에 ἡμῶν ἐν ὑμῖν이 더 원본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¹² 이를 고려하더라도 τῇ ἐξ ἡμῶν ἐν ὑμῖν ἀγάπῃ를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다.¹³ 이를 직역하면 “우리로부터 [나온] 너희 안의 그 사랑”이고, 이는 “우리가 너희 안에 불어넣은 그 사랑”(the love we have inspired in you)으로 번역할 수 있다.¹⁴

1.7. 고린도후서 8:19 {C}

κ D¹ Ψ 075 Byz : αὐτοῦ

P 0243 263 : αὐτήν

B C D^{*} F G L 811 : 생략

『개역개정』: 동일한 [주의 영광과 ...]

『새한글성경』: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본 구절과 관련된 사본을 보면, **κ**와 D¹, 그리고 Ψ, 075, Byz 등의 사본은 3인칭 대명사 남성 속격인 ‘아우투’(αὐτοῦ)를 포함하지만, P와 0243, 그리고 263 등의 사본은 3인칭 대명사 여성 대격인 ‘아우텐’(αὐτήν)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12 Martin, 2 Corinthians, 260;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573.

13 참고. 영어 번역본 중 ESV와 NASB는 첫 번째 이문을 받아들여서 “in our love for you”(ESV) 혹은 “the love we inspire in you”(NASB)로 번역한다. 그리고 NIB와 NLT, 그리고 KJV는 두 번째 이문을 받아들여서 “in your love for us”(NIV)와 “your love from us”(NLT), 그리고 “in your love to us”(KJV)로 각각 번역한다.

14 참고. Martin, 2 Corinthians, 262.

B와 C, 그리고 D*, F, G, L, 811 등과 같은 사본은 대명사 자체를 생략한다. 먼저 가장 덜 지지를 받는 두 번째 이문은 제외한다. 사본 상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일단 첫 번째 이문이 더 폭넓은 사본의 지지를 받는 듯하다. 그리고 생략한 것보다는 이것이 더 어려운 읽기(the harder reading)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문이 원본에 더 가까운 듯하다. 어떤 이는 바울이 먼저 αὐτοῦ를 쓰고 이어서 설명적 독백(explanatory aside)으로 τοῦ κυρίου를 넣은 것이 아닌지 추측하기도 한다.¹⁵ 3인칭 대명사는 이어지는 ‘주님’(τοῦ κυρίου)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새한글성경의 것처럼 “바로 그 주님의”라고 번역할 수 있다.¹⁶

1.8. 고린도후서 11:3 {C}

P^{46, 124} Ⲱ* B F G 0150 33 : ἀπὸ τῆς ἀπλότητος καὶ τῆς ἀγνότητος

D^{*vid, 1} it^d : ἀπὸ τῆς ἀγνότητος καὶ τῆς ἀπλότητος

2* Ⲱ D^{2vid} H Ψ 075 Byz : ἀπὸ τῆς ἀπλότητος

『개역개정』: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하노라]

『새한글성경』: 순결함으로부터 [엇나가지나 앓을까 해서요]

본 구절의 사본을 보면 먼저 P^{46, 124}와 Ⲱ*, 그리고 B, F, G, 0150, 33 등의 사본은 ἀπὸ τῆς ἀπλότητος καὶ τῆς ἀγνότητος로 기록한다. 그러나 D^{*vid, 1}과 it^d 등의 사본은 첫 번째 이문에 나타난 τῆς ἀπλότητος와 τῆς ἀγνότητος의 순서를 바꾸어 ἀπὸ τῆς ἀγνότητος καὶ τῆς ἀπλότητος라고 기록한다. 이에 반해 2* Ⲱ와 D^{2vid}, 그리고 H, Ψ, 075, Byz 등의 사본은 καὶ τῆς ἀγνότητος가 생략된 채 ἀπὸ τῆς ἀπλότητος로만 기록한다. 어떤 이들은 가장 긴 첫 번째 이문에서 같은 음으로 끝나는 두

15 참고. Martin, 2 Corinthians, 272;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597.

16 영어 번역본은 일반적으로 ‘주님 그 자신’(the Lord himself)로 번역한다(ESV; NASB; NIV). 그러나 KJV는 ‘같은 주님’(the same Lord)로 번역했고, NLT는 단순히 ‘그 주님’(the Lord)로 번역한다.

단어(*ἀπλότητος*와 *ἀγνότητος*)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필사자들이 오해하고 두 번째 것을 빠뜨렸다고 본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두 번째 이문의 경우는 둘 중 하나가 빠뜨려진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수로 빠뜨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¹⁷ 만약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면 보다 더 오래되고 광범위한 사본의 지지를 받는 첫 번째 이문이 원본에 가까운 듯하다. 따라서 “진실함과 순결함에서”로 번역할 수 있다.¹⁸

1.9. 고린도후서 12:7 {C}

⌘ A B F G 0243 : **διό**

P⁴⁶ D Ψ 075 Byz : **생략**

『개역개정』: **이는**

『새한글성경』: **그래서**

본 구절에서의 이슈는 대략 두 가지이다. 첫째, 12:7a가 12:6의 일부로서 결론을 말하며 문장을 끝내는지 아니면 문장의 시작으로 12:7b의 첫 부분인지에 대한 것이다. 둘째, 12:7의 원 본문에 *δι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διό*가 문장의 시작에 위치하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전치사가 포함될 때는 12:7a가 12:6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διό*가 생략될 때는 12:7a는 12:7b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사본 상 ⌘와 A, 그리고 B, F, G, 0243 등과 같은 사본은 *διό*를 포함한다. 그러나 P⁴⁶과 D, Ψ, 075, Byz 등의 사본은 이를 생략한다. 보다 오래 된 사본은 두 번째 이문을

17 참고. Martin, 2 Corinthians, 328.

18 첫 번째 명사(*ἀπλότης*)는 ‘순박함’(simplicity) 또는 ‘일편단심(진심)’(singleness), 두 번째 명사(*ἀγνότης*)는 ‘순수함’(purity) 또는 ‘순결’(chastity) 등의 의미를 가진다. 영어 번역본 중 첫 번째 이문을 따르는 번역본은 ‘from a sincere and pure’(ESV); ‘from the simplicity and purity’(NASB); ‘sincere and pure’(NIV); ‘pure and undivided’(NLT) 등으로 번역하고, 세 번째 이문을 따르는 번역본은 ‘the simplicity’(KJV)로 번역한다.

지지하지만, **κ**와 A, 그리고 B와 같은 사본은 *δι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어떤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 것인지 추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이는 원래 *δι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12:7a를 새로운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διό*를 빼먹었다고 생각한다.¹⁹ 더 어려운 본문이 원본에 가까울 수 있다는 규칙(*Lectio difficilior lectio probabilior*)을 고려해 보면, 첫 번째 이문이 더 원본에 가까울 수 있다.²⁰ 이를 반영하여 12:7a와 *διό* 이하의 문장을 번역하면, [12:6b: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12:7a: [내가 받은] 계시들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12:7b: 그러므로 내가 자만하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에 가시가 주어졌으니...”와 같이 할 수 있다.²¹

1.10. 고린도후서 12:15 {C}

P⁴⁶ **κ** B D Ψ 075 0243 Byz : *ἀγαπῶν, ἥσσον ἀγαπῶμαι;*

κ^{*} A 0150 33 F G : *ἀγαπῶ, ἥσσον ἀγαπῶμαι;*

『개역개정』: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새한글성경』: 여러분을 내가 더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이 구절과 관련하여 오래된 사본인 P⁴⁶과 ²**κ**, 그리고 B, D, Ψ, 075, 0243, Byz 등 많은 사본은 *ἀγαπῶν, ἥσσον ἀγαπῶμαι*;로 기록한다. 그러나 **κ**^{*}와 A, 그리고

19 참고, Martin, 2 Corinthians, 389.

20 참고,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829.

21 고린도후서 12:7b의 수동태 동사 *ἐδόθη*를 신적수동태(divine passive)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자만하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로 번역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문을 따르면서 12:7a의 문장이 끝나면서 *διό*로 시작하는 것을 가장 잘 따른 영어번역성경은 NLT로서 “even though I have received such wonderful revelations from God. So to keep me from...”(비록 내가 그 엄청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므로 내가 자만하게...).

0150, 33, F, G 등의 사본은 ἀγαπῶν이라는 분사 대신 직설법 동사인 ἀγαπῶ, ἥσσον ἀγαπῶμαι;로 기록한다. 이른 사본인 P⁴⁶과 ²κ, 그리고 B 외에 Byz 등 광범위한 사본이 첫 번째 이문을 지지하기에 외적인 증거는 첫 번째 이문을 지지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첫 번째 이문이 더 어려운 것이기에 원본에 더 가깝다고 본다. 그러나 가정법이라는 문법 사항 외에 문맥 등의 내적인 증거는 오히려 직설법 동사가 사용된 두 번째 이문을 지지한다고 본다.²² 둘 중에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운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두 번째 이문이 더 원본에 가까운 듯하다. 이를 반영하여 번역을 제시하면,²³ 개역개정 of 것처럼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덜 사랑을 받겠느냐?”로 번역할 수 있다.²⁴

2. 사본 경향 분석

파피루스, κ*, B가 일치하는 경우 : 5:3; 11:3(2회)

파피루스, κ*, B가 불일치하는 경우 : 7:8(1회)

κ*, B가 일치하는 경우 : 1:14; 5:3; 11:3; 12:7(3회)

κ*, B가 불일치하는 경우 : 1:10; 2:1; 7:8; 8:7, 19; 12:15(6회)

파피루스와 κ*가 일치하는 경우 : 5:3; 11:3(2회)

파피루스와 κ*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1:10, 14; 2:1; 7:8; 8:7; 12:7, 15(7회)

파피루스와 B가 일치하는 경우 : 1:10; 2:1; 5:3; 7:8; 8:7; 11:3; 12:15(7회)

파피루스와 B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1:14; 12:7(2회)

22 Martin, 2 Corinthians, 425; Metzger, Textual Commentary, 586–87.

23 첫 번째 이문처럼 분사인 경우 “만약 너희를 더 사랑하면 덜 사랑받는 것이냐?”(if loving you more, am I loved less?)이고 두 번째 이문처럼 직설법 동사인 경우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덜 사랑을 받겠느냐?”(if I love you more, am I loved less?)로 번역할 수 있다.

24 GNT 5판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어떤 비잔틴 사본은 “εἰ καὶ περισσοτέρως ὑμᾶς ἀγαπῶν, ἥττον ἀγαπῶμαι.”와 같이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영어 번역본 중 NLT는 이를 따라서 “even though it seems that the more I love you, the less you love me.”라고 번역한다. KJV 역시 “though the more abundantly I love you, the less I be loved.”라고 번역한다.

⌘*와 다수사본이 일치하는 경우 : 1:10; 2:1; 5:3; 7:8; 8:7, 19(6회)

B와 다수사본이 일치하는 경우 : 5:3; 12:15(2회)

⌘*, B, 다수사본이 일치하는 경우 : 5:3(1회)

나오면서

이상에서 GNT 5판을 근거로 본문비평 등급 {C}에 해당하는({D}등급은 없음) 고린도후서 본문 10 구절을 살펴보았다. 사본 상 ⌘*과 B가 일치하는 경우가 3회, 불일치하는 경우는 6회였다. 파피루스와 ⌘*가 일치하는 경우는 2회인 반면, 불일치하는 경우는 7회로 더 많다. 파피루스와 B의 경우는 일치하는 경우가 7회인 반면 불일치하는 경우는 2회이다. 이러한 비교가 보여주듯이 사본 상 특정 이문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경우가 드물고, 이러한 사실은 각 본문의 본문비평 등급이 {C}라는 결과에 반영되어 있다. 외적인 증거만으로는 어떤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 것인지 밝히는 것은 불가능 하다. 비록 내적 증거를 조사하더라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원본에 가까운 이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증거와 다양한 내적 증거를 토대로 더 깊은 논의를 할 때, 보다 원본에 가까운 이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의 배경

김 원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외래교수

1. 들어가며

이 글은 고린도후서의 역사적, 문화적, 문맥적 배경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서신의 정황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서신의 개략적 구조와 저자의 저술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고린도후서의 무대가 되는 고대 도시 고린도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고린도후서의 문맥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의 저술목적과 구조에 대해 간단히 다룰 것이다.

고린도후서에 수록된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 특히 서신의 문맥적 혹은 문학적인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한 편이다. 고린도후서의 여러 논쟁점에 관한 이 글의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으며 이 글은 이들 주요 견해를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첫째, 고린도후서는

단일 저자(바울)가 작성한 단일 서신(하나의 통일된 구조)이다. 둘째,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아하, '수신자들')에게 네 차례 편지를 보냈고 세 번 고린도교회를 방문했는데, 고린도후서는 이들 중 '네 번째' 편지이며 서신을 보낸 후 바울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이 이루어졌다. 셋째, 고린도교회에 침투한 소위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2차 혹은 3차 전도여행 어간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로 추정된다. 넷째, 고린도후서의 저술목적은 바울의 앞선 세 차례의 편지 및 두 차례의 고린도 방문과 긴밀히 연관되어있다.

2. 고대 고린도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가. 고대 도시 고린도의 역사적·지리적 배경 : 주전 44년 이전까지

고대 도시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아가야는 원래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북쪽이자 그리스 반도의 남쪽, 그리고 고린도만(灣)을 접한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붙여진 명칭이다.¹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아가야 지방이 12 지역 혹은 도시들로 구성됨을 진술하는데,² 이들 지역은 두 차례의 '아가야 동맹'을 결성하여,³ 아가야 지역 바로 북쪽에 위치한 '아이톨리아' 동맹, 더 북쪽에 위치한 마게도냐 왕국, 궁극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동맹 혹은 긴장관계를 유지했다.⁴

주전 3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린도의 역사는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고린도는 마게도냐 왕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아가야 동맹으로 환원되기를 반복하였고(주전 243-197), 그 사이 고린도는 아가야 동맹의 중심 도시로

1 Strabo, Geography, 8.7.1.

2 Herodotus, The Histories, 1.145.

3 이들 동맹 중 고린도후서의 배경에 더 가까운 것은 제2차 아가야 동맹(주전 286-143)이다.

4 Gene L. Green, "Achaia,"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ed. Joel B. Green and Lee Martin McDonald (Grand Rapids: Baker, 2013), 544-45.

부상했다.⁵ 그 즈음 확장일로였던 로마와 이를 경계하던 마게도냐 왕국 사이의 ‘마게도냐’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어졌는데(주전 214-205; 200-196; 172-168; 150-148),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동맹은 이들 중 2차 및 4차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본디 아가야는 1차 마게도냐 전쟁에서 마게도냐 왕국을 지지했지만 2차 전쟁에서 로마와 동맹을 맺고 로마의 승리에 일조한다. 2차 전쟁 이후 아가야는 로마에 협조한 대가로 로마에 의해 마게도냐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⁶

이후 아가야 동맹의 일원인 스파르타와 나머지 동맹 도시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스파르타와 동맹관계였던 로마가 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가야 동맹의 다른 도시들은 로마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4차 마게도냐 전쟁; 주전 147년).⁷ 아가야 동맹보다 군사적으로 강했던 마게도냐 왕국조차 멸망시켰던 로마에게 아가야 동맹은 너무나도 쉬운 상대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로마의 집정관인 루키우스 뮌미우스가 직접 3,500명의 기병과 23,000명의 보병을 이끌고 참전했으며, 전쟁은 당연히 로마의 승리로 끝났다(주전 146년).⁸ 로마는 전쟁 후에 아가야 동맹의 주요 도시인 고린도를 본보기로 철저하게 파괴했다.⁹ 도시 내 대부분의 건물은 무너졌고, 거주하던 성인 남자들은 사망했으며, 여성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나갔다.¹⁰ 황폐화된 도시는 그 후로 약 백여 년 간 방치되었다(주전 44년까지).

5 George H. Guthrie, 2 Corinth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2015), 10.

6 물론, 이 독립은 엄밀한 의미의 자유는 아니었다. 아가야 동맹은 단지 마게도냐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릴 뿐이었으며, 로마에 대해서는 세금을 바쳐야만 했다. Green, “Achaia,” 546.

7 Guthrie, 2 Corinthians, 10.

8 Victor Paul Furnish, II Corinthians: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YB 32A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4), 6; Green, “Achaia,” 549.

9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7.16.7-7.16.8.

10 Guthrie, 2 Corinthians, 10.

나. 고대 도시 고린도의 역사 및 지리적 배경 : 주전 44년-신약시대

고린도는 공화정 말기의 최고 지도자(독재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재건된다.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스와 카시우스 등에게 암살당하기 직전에 고린도와 더불어 이 도시와 비슷한 이유로 파괴되었던 카르타고를 모두 재건할 것을 명령한다(주전 44년).¹¹ 카이사르는 고린도에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민(해방노예)’을 이주 시켜서 거주하게 했다.¹² 이들과 함께 다른 로마의 식민 도시들과 비슷하게 고린도에도 퇴역 군인들이 거주했다.¹³

카이사르가 고린도를 재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이는 고린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다.¹⁴ 고린도는 육로로는 남쪽의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북쪽의 아티카(그리스 남동부 지방)를 연결하는 지협 of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¹⁵ 더군다나 이 지협의 북쪽과 동쪽에는 지협과 접한 동서 해안을 연결하는 두 항구가 있었다.¹⁶ 요컨대, 고린도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은 고린도를 곧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성장하게 하였다.

다. 고린도의 사회경제학적 배경

스트라본의 말처럼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¹⁷ 우선, 고린도의 지정학적 특징 덕분에 고린도는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11 Furnish, 2 Corinthians, 6.

12 Strabo, Geography, 8.6.23.

13 Anthony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0), 3.

14 Guthrie, 2 Corinthians, 10; Strabo, Geography, 8.6.23.

15 Colin G. Kruse, 2 Corinthian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NTC 8 (Downers Grove, IL: IVP, 1987), 16.

16 스트라본은 고린도가 두 항구의 주인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도시 북쪽으로 3킬로미터 지점에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레가움항이, 동쪽으로 10킬로미터 지점에는 작지만 중요한 겐그레아항이 있었다. 따라서 고린도는 이들 항구들을 통해서 서쪽의 고린도만(더 나아가서 이오니아해)과 동쪽의 사르오닉만(더 나아가서 에게해)으로 진출이 가능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2.1.5; Strabo, Geography, 8.6.20, 8.6.22.

17 Strabo, Geography, 8.6.20.

특히, 고린도에는 ‘디올코스’라고 명명된 육지 운하가 있었는데, 이는 많은 무역상들에게 매력적인 운송 경로였다.¹⁸ 둘째, 비록 건조기후 탓에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지는 못했지만 고린도 인근에는 평야가 있었고 수량이 풍부한 네메아 강이 있었다. 따라서 고린도는 적절한 농산물과 함께 도시를 운용하기에 충분한 생활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었다.¹⁹ 셋째, 고린도는 귀금속인 동(銅)의 주 생산지 중 하나로 동과 관련된 각종 장식품의 생산지로 유명했다.²⁰

도시의 경제적인 부는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했다. 경제적으로 팽창하는 고린도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민족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고린도에는 원주민(해방된 자유민 및 퇴역군인)과 더불어 도시 무역상, 노동자 등이 도시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²¹ 또한 고린도에는 로마인뿐만 아니라 시리아인, 이집트인, 유대인 등의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했다.²² 도시의 지경 또한 넓어졌다. 당시 고린도 근방 25킬로미터 내에 생겨난 소도시의 수는 젠그레아를 포함하여 최소 9개에 이른다.²³ 비록 고린도 재건 당시의 인구는 알기 어렵지만, 주후 1세기의 고린도 인구는 도심과 교외를 포함하여 대략 10만 정도로 추정된다.²⁴ 이는 로마의 소위 3대 도시(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18 ‘디올코스 운하’는 오늘날의 운하와는 다소 다른 레가움항과 젠그레아항을 연결하는 약 16킬로미터의 포장도로를 지칭한다. 무역상들은 이 도로를 통해서 한편의 항구에서 짐을 내린 후에 육로로 다른 편의 항구로 이동한 후 다시 배에 짐을 싣고 항해했다. 이는 무역상들의 시간과 돈을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했다. 사실, 펠레폰네소스 반도 남부의 말레아곶은 조류가 심하고 날씨가 악명 높았기 때문에 무역상들은 이곳을 항해하는 것을 꺼려했다. 또한, 반도 남부를 우회하는 해로는 약 320킬로미터로 길었기 때문에 육로 운하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이점이 있었다. 이에, 고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육지를 관통해서 바다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현대적 시설인 운하를 당대에 만들어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 ‘고린도 운하’는 1893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 Kruse, 2 Corinthians, 16.

19 Guthrie, 2 Corinthians, 13.

20 Furnish, 2 Corinthians, 9; Strabo, Geography, 8.6.23.

21 Thiselton, 1 Corinthians, 3.

22 Furnish, 2 Corinthians, 7.

23 Green, “Achaia,” 551.

24 Donald Engels, Roman Corinth: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Classical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84.

안디옥)만큼은 아닐지라도, 제국의 주요 도시로 간주되기에 충분한 규모였다.

재건도시인 고린도는 사회적으로도 기회의 땅이었다. 이는 고린도가 평민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이다.²⁵ 로마 사회에서 개인은 좋은 가문, 직위, 지식, 종교적 신실함, 부 등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²⁶ 따라서 평민출신의 이주민은 고린도에서 부 혹은 좋은 직위를 취득함으로 귀족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여지가 있었다.²⁷ 로마의 수사학자이자 역사가였던 디온 크리소스토모스는 고린도인들이 특히 자신들의 부를 뽐냈음을 언급한다.²⁸ 이는 고린도 사람들이 주로 부를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인 명예를 얻으려고 애썼음을 보여준다. 사실 바울은 경제적인 부에 있어서는 중립적이었다. 그는 재물을 취득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바울은 수신인들에게 경제적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조심했다(고후 11:7-9). 따라서 재물을 축적하여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고린도인들의 가치관과 바울의 가치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자연스레 사도 바울과 수신자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다.²⁹

라. 고린도의 문화적·종교적 배경

고린도는 헬라어를 사용했으며, 지리적으로도 “헬라”라고 불릴 만큼(행 20:2-3) 헬라문화에 뿌리를 둔 곳이었다. 동시에 고린도는 로마의 문화가 지배하던 도시였다.³⁰ 이는 로마가 고린도를 파괴하고 재건설한 주체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도시를 로마 시민들을 중심으로 재건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린도 곳곳에 남아있는 라틴어 비문들, 로마식 도시 설계와 건물들의 배치,

25 David E. Garland, 2 Corinthians, NAC 29 (Nashville: B&H, 1999), 21-24.

26 Guthrie, 2 Corinthians, 16.

27 단, 이 같은 사회적 성공은 매우 소수만 이룰 수 있었다. Garland, 2 Corinthians, 24.

28 Dio Chrysostom, Discourses, 9.8.

29 Guthrie, 2 Corinthians, 16.

30 Garland, 2 Corinthians, 21.

고린도와 관련된 신약 성경 인물 17명 중 8명의 이름이 라틴어(로마식 이름)라는 점은³¹ 이 도시에 미친 로마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잘 보여준다.³² 고린도는 주전 46년에 아가야 속주로 편입된 이후에 팽창을 거듭하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주전 27년에 아가야 속주의 수도가 되었다. 고린도는 바야흐로 속주의 총독이 머무는 아가야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 시기까지 번창해 나갔다.³³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작성할 당시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인들이 섬기던 그리스-로마의 신들은 물론이고 여러 외국의 종교들을 폭 넓게 용인했다.³⁴ 더군다나 고린도는 다양한 민족 출신들이 더불어 사는 소위 국제적인 도시였다. 따라서 고린도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신은 아프로디테이다.³⁵ 스트라본은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아크로고린도(고린도의 신전과 성채가 자리 잡은 곳)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며, 이 신전에 천명이 넘는 성전 노예, 창기, 남창이 속해 있었음을 진술한다.³⁶ 또한 스트라본은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수많은 고린도 남성들과 고린도에 정착한 항해자들이 신전 창기와 음행하기 위해 방문해서 돈을 낭비했음을 언급한다.³⁷ 또 다른 고대의 지리학자이자 여행가인 파우사니아스는 고린도 사람들은 아프로디테에 더해 다수의 그리스 신들(포세이돈, 아데미, 디오니수스, 헤르메스, 아폴로, 제우스)과 이집트 신들(이시스, 사라피스 등)을 섬겼음을 기록했다.³⁸

31 이들은 브드나도(고전 16:17); 누기오(롬 16:21); 더디오(롬 16:22); 가이오와 구아도(롬 16:23);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행 18:2); 디도 유스도(행 18:7) 등이다. Garland, 2 Corinthians, 22.

32 Furnish, 2 Corinthians, 7.

33 Guthrie, 2 Corinthians, 11;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2.1.2.

34 Furnish, 2 Corinthians, 15.

35 아프로디테는 그리스의 12 주요 신들 중 하나로서 특히 미와 사랑을 관장하는 여신이다. Moyer V. Hubbard, "Greek Religion,"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ed. Joel B. Green and Lee Martin McDonald (Grand Rapids: Baker, 2013), 108.

36 Strabo, Geography, 8.6.20.

37 Strabo, Geography, 8.6.20.

38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2.16-2.19.

로마의 제정시대 이후로 보편화된 ‘황제 숭배’ 경향 역시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 발견된다. 황제 숭배는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간주하고 숭배하는 종교적 경향인데,³⁹ 고린도에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재임 시기에 황제의 가문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건축되었다. 이 신전은 주후 77년 경 지진으로 무너졌다가 이후에 아우구스투스의 누이인 옥타비아를 기리는 신전으로 재건되었다.⁴⁰

마지막으로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했으며, 이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유대인들은 제2성전기(주전 516-주후 70) 내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유대지방에서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져 생활했다.⁴¹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이들은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흩어져 살며 신앙을 고수해왔다. 필론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린도를 포함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음을 증언한다.⁴² 이 회당은 고린도에서 바울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되었다(행 18:1, 4). 바울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설교하며 복음전파를 했고, 이 복음전파는 고린도교회를 설립하는 기초가 되었다(행 18:11).

3. 고린도후서의 문맥적 배경

도시 고린도가 인근의 마게도냐 왕국 및 로마 제국과의 역사적인 힘겨루기 중에 배태된 것 같이, 고린도후서도 신약 성경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39 황제숭배의 기원은 소아시아의 버가모 지역으로 추정된다. 버가모의 지도자들은 주전 29년 경 자발적으로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아우구스투스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Nicholas Perrin, “The Imperial Cult,”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ed. Joel B. Green and Lee Martin McDonald (Grand Rapids: Baker, 2013), 125.

40 Furnish, 2 Corinthians, 19;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2.3.1.

41 David A. deSilva, “Jews in the Diaspora,”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ed. Joel B. Green and Lee Martin McDonald (Grand Rapids: Baker, 2013), 272–76.

42 Philo, *Legat.*, 281.

배경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의 문맥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들이다. 이 책들은 바울이 수신자에게 보낸 편지들, 수신자들을 방문한 횟수, 더 나아가서 이 편지들과 방문 여행 간의 순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가. 바울 저작권과 서신의 구조적 통일성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작성한 하나의 통일된 서신이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린도후서의 바울저작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⁴³ 하지만 1776년 세믈러가 최초로 고린도후서의 일부가 바울이 작성한 다른 편지들의 파편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이래로,⁴⁴ 일부 학자들은 해당 서신 전부가 바울의 동일한 편지의 내용임을 부인한다.⁴⁵ 대체적으로 이들은 고린도후서의 일부(고후 2:14-7:3 혹은 6:14-7:1 혹은 8장 혹은 9장 혹은 10-13)가 바울의 다른 편지 혹은 독립된 다른 저자의 편지이지만 서신의 진본과 결합되어 편집되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또한 다양한 근거들로 반박된다.⁴⁶

고린도후서의 구조적 통일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바울과 수신인들 간의 미묘하면서도 복잡한 관계에 기인한다.⁴⁷ 바울의 수신인을 향한

43 예를 들어, Guthrie, 2 Corinthians, 5; Murray J.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1-2.

44 J. S. Semler, Paraphrasis II. epistolae ad Corinthos. Accessit Latina Vetus translatio et lectionum varietas (Halle-Magdeburg: impensis C. H. Hemmerde, 1776).

45 고린도후서의 구조에 관한 학자들의 대략적인 견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Furnish, 2 Corinthians, 30-48; Guthrie, 2 Corinthians, 23-32.

46 지면의 한계로 인해 고린도후서의 구조적 통일성을 부인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자세히 다루지 못한다. 서신의 구조적 통일성을 부인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고린도후서가 두 서신에서 많게는 다섯(Eve-Marie Becker, Letter Hermeneutics in 2 Corinthians (Edinburgh: T&T Clark, 2004), 66) 혹은 여섯 서신으로(N. H. Taylor, "The Composition and Chronology of Second Corinthians," JSNT 44 (1991): 67-87)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서신이 편집의 결과물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을 참고하라: Harris, 2 Corinthians, 8-51; Garland, 2 Corinthians, 33-44; Mark A. Seifrid, 2 Corinthians,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14), xxiv-xxxi.

47 James Moffatt,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New Testament (Edinburgh: Clark, 1918), 123.

복잡한 심정은 서신에서 다양한 주제 혹은 다양한 어조로 표현되며, 이는 여러 학자들로 하여금 서신의 구조적 통일성에 의심을 갖게 했다. 물론, 고린도후서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는 다른 바울서신(특히, 고린도전서) 및 신약 성경(특히, 사도행전)의 문맥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들 문맥은 고린도후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주제와 바울의 다양한 어조에 대한 배경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들 문맥적 배경을 고려하면 고린도후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주제와 저자의 다채로운 어조에는 납득할 만한 정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바울의 고린도 방문과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들

바울은 고린도를 모두 세 차례 방문했으며 고린도교회를 향해 모두 네 통의 편지를 보냈다. 이들 방문과 편지들은 고린도후서의 문맥적 배경을 제공해주며,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를 작성할 당시 바울의 정황을 상세하게 조명해준다. 이 글은 각각의 방문과 편지를 다음과 같이 지칭한다: 첫째, 바울의 첫 번째(고린도) 방문은 2차 전도여행 때의 고린도 방문을 지칭한다. 둘째,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은 ‘고통스러운 방문’으로 정의한다. 셋째, 바울의 세 번째 방문은 3차 전도여행 때의 고린도 방문을 지칭한다. 넷째, 바울의(고린도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이전 편지’로 정의한다. 다섯째, 바울의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이다. 여섯째, 바울의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네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이다.

1) 바울의 첫 번째 방문 : 2차 전도여행 중(주후 50-52경)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반에 고린도를 방문해서(행 18:1-8)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행 18:5). 바울의 복음전파 대상은 유대인과(행 18:5) 인근에 사는 이방인(행 18:8)이었다. 이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믿고 회심하여 고린도교회의 설립교인이 되었다. 또한 이들의 회심에는 바울의

설득력 있는 성경해석(고후 3:12-18), 바울이 보인 표적과 기사와 능력(고후 12:12),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개의치 않고 베풀어 주는 교회의 사랑과 돌봄(고전 12:13)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⁴⁸

바울은 첫 번째 방문 당시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간 머물렀다(행 18:11). 바울의 첫 번째 방문은 대략 주후 50-52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바울의 첫 번째 방문은 주후 49년 이후이다. 바울의 고린도 개척 사역 당시에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추방령으로 로마에 거주하다가 고린도로 옮겨왔다(행 18:2). 주후 4세기의 역사가 오로시우스의 증언을 감안해 볼 때 이 추방령은 주후 49년에 이뤄졌다.⁴⁹ 따라서 바울의 고린도 개척사역은 주후 49년 이후이다. 둘째, 바울의 첫 번째 방문은 주후 52년 이전이다. 성경은 바울의 개척 당시에 아가야의 총독이 갈리오 임을 언급한다(행 18:12-17).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갈리오의 재임기간은 대략 주후 51-52년으로 추정되며,⁵⁰ 따라서 바울은 이르면 50년 늦어도 52년에는 고린도를 방문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바울의 첫 고린도교회 방문은 그의 2차 전도여행 중인 주후 50-52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바울의 첫 번째 편지 : ‘이전 편지’(3차 전도여행의 에베소 체류 시기에 작성)

비록 바울의 첫 번째 편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⁵¹ 신약 성경의 문맥을 통해 이 편지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첫 번째 편지(‘이전 편지’)를 작성했을 것이다(주후 52-

48 Garland, 2 Corinthians, 25.

49 오로시우스는 클라우디우스가 그의 재위 9년 차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음을 증언한다. Orosius, *Historiarum adversus Paganos*, 7.6.15.

50 이는 델피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들의 일부 파편들이 갈리오의 주후 51-52년 재임을 대략적으로 추정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Thiselton, 1 Corinthians, 29-32.

51 Seifrid, 2 Corinthians, xxii.

55년 경). 바울은 3차 전도여행(행 18:23-21:16) 시에 에베소와 그 인근에서(행 19:1-41) 대략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행 19:8-10).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당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잠깐 머무른 후(행 18:19-21)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고,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도 에베소에 이르기 전까지는 비교적 오래 머문 곳이 없었다(행 18:22-23). 이를 감안하면 아마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주요 사역지인 에베소에서 첫 번째 편지를 작성했을 것이다.

둘째,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범한 음행의 죄를 책망했다(고전 5:9-13).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언급하며 첫 번째 편지(‘이전 편지’)가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작성되었음을 말한다(고전 5:9). 따라서 ‘이전 편지’는 고린도교회 내에 발생한 음행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며,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보다 앞서 수신인들에게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바울은 동역하던 디모데를 통해 이 편지를 보냈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 수신자들을 훈육했을 것이다.⁵²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한 이후(행 16:1-3) 바울의 고린도교회 개척 사역을 동역했다. 따라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익숙한 디모데를 보내서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행동을 책망했을 것이다.

3) 바울의 두 번째 편지 : 고린도전서(주후 55년경)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체류하던 중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절들을 통해서 고린도교회의 분쟁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고전 1:11-12), 또한 고린도교회의 일원인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로부터도 교회에 산적한 여러 어려움들을 들었을 것이다(고전 7:1; 11:18; 16:17).⁵³ 이들 문제는 ‘이전

52 Garland, 2 Corinthians, 26; Seifrid, 2 Corinthians, xxiii.

53 Harris, 2 Corinthians, 103.

편지'에서 지적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던 음행(고전 5:1-13)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성도들 간에 벌어진 쟁송(고전 6:1-11),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음(고전 8), 성찬(고전 11:17-34), 성령의 은사(고전 12), 부활에 관한 논쟁(고전 15) 등을 포함한다. 바울은 에베소 체류 기간 후반부에 고린도전서를 작성했으며(고전 16:8), '이전 편지'와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전서를 보냈을 것이다(고전 4:17; 16:10-11).⁵⁴ 바울이 에베소에 대략 주후 55년까지 체류했음을 감안하면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경에 작성되었을 것이다.⁵⁵

4) 바울의 두 번째 방문 : '고통스러운 방문'(주후 55-56)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정에 없던 두 번째 혹은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게 된다. 사실 사도행전은 바울이 2차와 3차 전도여행 기간에 고린도를 방문했던 기록 외에 추가적인 방문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하지만, 고린도후서의 증언을 살펴보면 바울의 '고통스러운 방문'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바울은 당시 에베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고린도를 방문할 수 있었다.⁵⁶ 둘째, 바울은 스스로 고린도후서를 작성하며 이미 두 차례의 방문이 있었다고 말한다(고후 12:14; 13:1-2). 즉,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3차 전도여행 기간에 일어났던 고린도 방문(행 20:2-3)은 사실 세 번째 방문이며, 따라서 이는 사도행전에 언급되지 않은 한 차례의 추가 방문이 이미 발생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고린도후서를 통해 바울의 이 두 번째 방문이 왜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던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우선, 두 번째 방문의 원인이 수신자들의 '부정적'인 영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미 한 차례의 방문을 통해 가르쳤고

54 Garland, 2 Corinthians, 26.

55 이는 대략적인 추정일 뿐이다. 성경 사건들의 구체적인 연대를 확정짓는 일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 혹은 역사적 증거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 글의 의도는 고린도후서와 관련된 다양한 성경 사건들의 전후 관계를 규명함이다. 참고로, 티슬턴은 다소 이른 주후 54년을 고린도전서의 유력한 작성 시기라고 주장한다. Thiselton, 1 Corinthians, 31-32.

56 Harris, 2 Corinthians, 54.

두 통의 편지로 수신자들을 추가로 권면했지만, 고린도교회에는 여전히 부도덕한 자들이 정리되지 않았으며(고후 12:21), 범죄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고후 13:2). 또한 아마도 이 즈음 바울의 ‘대적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을 것이다(고후 11:4, 22 등).⁵⁷ 더군다나 이 두 번째 방문의 결과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에(고후 1:23; 2:1; 12:14; 13:1) 이 방문은 바울에게 고통스러웠다. 바울의 두 번째 방문 시에 교회의 지도자들 중 한 명(“나를 기쁘게 할 자,” 고후 2:3)이 도리어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했다.⁵⁸ 또한 수신자들의 대부분이 이 지도자의 바울을 향한 비판을 지지했다(고후 7:11-12).⁵⁹ 요컨대,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은 원인도 결과도 모두 괴로운 방문이었다.

5) 바울의 세 번째 편지 : ‘눈물의 편지’(주후 55-56)

바울은 ‘고통스러운 방문’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후 세 번째 방문을 곧장 실행하지 않는다. 대신 바울은 에베소에서 소위 ‘눈물의 편지’를 작성한 후(고후 2:3-4, 9; 7:8),⁶⁰ 디도를 통해 이를 고린도교회로 보냈다(고후 2:13; 7:5-16). 비록 ‘눈물의 편지’는 현존하지 않지만, 고린도후서의 문맥을 감안하면 바울은 이 편지에서 수신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기초해(고후 2:4) 수신자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고후 7:5-16).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작성한 후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고(행 19:23-41), 바울은 부득불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⁶¹ 바울은 이후 드로아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후 2:12). 바울은 드로아에서 ‘눈물의 편지’를 전달한 디도를 만나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마게도냐로 이동해야 했다(고후 2:12-13). 비로소

57 Guthrie, 2 Corinthians, 20; Harris, 2 Corinthians, 103.

58 Seifrid, 2 Corinthians, xxv-xxvi.

59 Garland, 2 Corinthians, 27.

60 ‘눈물의 편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최소 6가지의 가설들이 존재한다. 이들 견해를 가운데, 이 글은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사이에 작성된 세 번째 편지임을 지지한다. Harris, 2 Corinthians, 5-8.

61 Guthrie, 2 Corinthians, 18.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수신자들은 바울을 공격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애통해하고(고후 7:7), 두려워하며(고후 7:11, 15), 회개했다(고후 2:6).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의 큰 위안을 얻었다(고후 7:6-7, 9, 11, 13, 15). 한편 디도는 바울에게 기쁜 소식과 함께 여전히 수신자들 사이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대적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보고했을 것이다.⁶² 이러한 고린도후서의 문맥은 서신의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바울의 어조를 이해하도록 돕는 정황을 제공해준다.

6) 바울의 네 번째 편지 : 고린도후서(주후 56)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눈물의 편지’에 대한 호의적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고후 7:8) 그곳에서 고린도후서를 작성했다. 디도는 ‘눈물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고린도로 가지고 가서 바울의 세 번째 방문 전에 미리 편지를 전달했다(고후 12:17-18). 또한 디도는 두 형제와 함께 고린도로 미리 이동해서 바울이 언급한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한 은혜의 사역(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의 연보)을 수행했다(고후 8:6, 16-17, 22).⁶³

7) 바울의 세 번째 방문 : 3차 전도여행 중(주후 56-57경)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나 고린도를 세 번째로 방문한 후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며 겨울을 보낸다(행 20:2-3). 이 기간 동안 로마서를 작성한(롬 15:25-28; 16:23) 바울은, 이후 고린도교회로부터 받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한다(행 20:3-4; 21:17; 24:17). 바울의 세 번째 방문은 이 방문이 3차 전도여행의 후반기 일정임을 고려하고 이후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금된 시기(주후 58-60) 등을 감안하면 주후 56-57년의

62 Garland, 2 Corinthians, 28-29.

63 Seifrid, 2 Corinthians, 343.

거울경임을 유추할 수 있다.⁶⁴

다. 바울의 ‘대적자들’

고린도후서의 문맥적 배경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규명이다. 고린도후서는 바울과 수신자만이 아는 제한적인 정보를 기초로 서로 간에 오간 서신이기에, 서신에 담긴 내용만으로 이들 ‘대적자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이 글은 고린도후서에 수록된 바울의 진술을 토대로 대략적으로나마 ‘대적자들’의 정체를⁶⁵ 소위 ‘거울 독법’(Mirror Reading)을⁶⁶ 통해 추정해 보고자한다.

고린도후서의 성경적인 문맥을 고려하면 고린도교회에 침투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2-3차 전도여행 어간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로서, 이들은 바울의 사역을 비난하며 바울과 수신자 사이를 이간질한 자들로 추정된다.⁶⁷ 첫째, ‘대적자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며 그들이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랑했다(고후 11:22).⁶⁸ 둘째, ‘대적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었다.⁶⁹ 이들은 예수님을 전파하지만 “하나님의

64 Stanley E. Porter, *The Apostle Paul: His Life, Thought, and Letters* (Grand Rapids: Eerdmans, 2016), 59.

65 바울서신에 나타난 ‘대적자들’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 학자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은 다음을 참고하라: J. L. Sumney, *Identifying Paul's Opponents: The Question of Method in 2 Corinthians*, JSNTSup 40 (Sheffield, UK: JSOT Press, 1990); 조재형, “영지사상에서 살펴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적대자,” 『신약논단』, 제20권 제2호(2013): 443-78.

66 거울 독법에 대해서는 John M. G. Barclay, “Mirror-Reading a Polemical Letter: Galatians as a Test Case,” JSNT 31 (1987): 73-93; Nijay Gupta, “Mirror-Reading Moral Issues in Paul's Letters,” JSNT 34 (2012): 361-81을 참고하라. 또한 거울 독법이 가진 한계 혹은 거울 독법을 통해 고린도후서를 분석했을 때 범할 수 있는 ‘대적자들’에 관한 오해의 예시들에 대해서는 Harris, 2 Corinthians, 69를 참고하라.

67 물론, 학자들의 주장은 조금씩 다르다. ‘대적자들’의 침투시기와 관련해서는 ‘눈물의 편지’와 고린도후서 사이(Garland, 2 Corinthians, 28),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Harris, 2 Corinthians, 103) 등으로 견해가 나뉜다. 또한 ‘대적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점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이들이 초기 영지사상에 물든 자들임을 주장한다(Harris, 2 Corinthians, 87; 조재형,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적대자,” 447-71).

68 단, 이들은 갈라디아서의 유대주의자들과는 다르다. 갈라디아서의 유대주의자들과 달리 고린도후서의 ‘대적자들’은 할례를 포함한 율법 행위를 교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Seifrid, 2 Corinthians, viii.

69 Seifrid, 2 Corinthians, viii.

말씀을 혼잡하게”(고후 2:17; 4:2)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했다(고후 11:4). 이들의 주장에 고린도교회는 일정부분 미혹되었을 것이다(고후 11:3).

셋째, ‘대적자들’은 그들 스스로 바울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라고 주장 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고후 10:5), 말에 유창하고(고후 10:10; 11:6), 심지어 환상과 계시를 본다고 주장했다(고후 12:1).⁷⁰ 바울은 ‘대적자들’이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외모를 자랑했다(고후 5:12)고 평가하며, 이들과 이들을 쉽게 용납한 수신자들을 비판했다(고후 11:19).

넷째, ‘대적자들’은 바울을 싫어하는 교회의 분파를 선동해서 이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했다. ‘대적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을 사도로 자칭하며(고후 11:13) 수신자들을 속였을 것이다(고후 2:17; 4:2; 11:3).⁷¹ 물론, 바울은 이들을 거짓사도로 지칭하며 비판했고(고후 11:13), 자신의 사도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함으로써(고후 11:2, 23-27; 12:1-4) 수신자들에게 거짓사도의 말이 아니라 참된 사도의 말을 들을 것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대적자들’은 일부 수신자들처럼 부도덕한 자들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대적자들’이 그러했다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들의 음행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후 2:1-11).⁷²

4. 고린도후서의 목적과 구조

마지막으로 이 글은 위에서 다룬 고린도후서의 역사적, 문맥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서신의 목적과 구조를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고린도후서의 목적은 바울이 서신에서 언급한 “이 모든 것은 너희의[수신자들의] 덕을

70 Garland, 2 Corinthians, 28.

71 Harris, 2 Corinthians, 72; Seifrid, 2 Corinthians, xxxvi.

72 Seifrid, 2 Corinthians, xxxv.

세우기 위험”(고후 12:19)이라는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덕을 세움’은 헬라어 ‘오이코도메’(οικοδομή)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오이코도메’는 이 단어의 다른 용례 등을 감안할 때(고후 10:8; 13:10),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선행을 하며(고후 13:7) 온전한 사람이 됨을(고후 13:9) 의미한다.⁷³ 따라서 고린도후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신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이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의 인사말(고후 1:1-7)과 끝인사(고후 13:11-14)를 제외한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뉜다(고후 1:8-7:16; 8-9; 10:1-13:10).⁷⁴ 이들 세 단락은 편지의 주된 목적과도 긴밀하게 연관된다. 바울은 수신자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보인 긍정적인 반응을 디도로부터 듣고 대단히 큰 위안을 얻었다(고후 7:6-7, 9, 11, 13, 15). 이 소식에 힘을 얻은 바울은 다시금 수신자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고후 1-7). 수신자들의 사도로서 바울은 더 나아가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권면한다(고후 8-9; 10-13).

우선, 바울은 수신자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 구제의 연보를 하기를 권했다(고후 8-9). 또한, 바울은 교회에 침투한 ‘대적자들’로 인해 수신자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다(고후 10-13). 따라서 바울은 수신자들이 ‘대적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제공함과(고후 10:1-5, 7, 12-18; 11:7-15, 22-30; 12:6, 9-10, 12, 14-15; 13:3-4, 10) 동시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고후 10:7-8, 14-15; 11:2, 5-6; 12:11-12; 13:6-7, 10) ‘거짓 사도’인 ‘대적자들’의 말이 아니라 ‘참된 사도’인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권면한다.⁷⁵

요컨대, 고린도후서에서 발견되는 바울의 권면과 사도권에 관한 강조는 결국 서신의 목적인 수신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주요한 방편이었다. 또한 위에서 다룬 고린도후서의 문맥적 배경은 서신에서

73 Harris, 2 Corinthians, 51.

74 Harris, 2 Corinthians, 52; Garland, 2 Corinthians, 45. 물론, 서신을 두 단락으로 나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다(Kruse, 2 Corinthians, 55-56).

75 Harris, 2 Corinthians, 52.

발견되는 다양한 주제와 바울의 다양한 어조의 당위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준다. 따라서 고린도후서는 단일 저자인 바울이 작성한 한 편의 편지이며, 이 글에서 다룬 역사적, 문화적, 문맥적인 배경에 비추어 이 서신을 읽을 때에 저자인 바울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 Baker, William, Ralph P. Martin, and Carl N. Toney. Cornerstone Biblical Commentary: Corinthians 1 & 2. CBC 15.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Publishers, 2007.
- Barclay, John M. G. "Mirror-Reading a Polemical Letter: Galatians as a Test Case." *Th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1 (1987): 73–93.
- deSilva, David Arthur.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Contexts, Methods and Ministry Formation*. Downers Grove, IL: IVP, 2004.
- _____. "Jews in the Diaspora."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Edited by Joel B. Green and Lee Martin McDonald. Grand Rapids: Baker, 2013.
- Engels, Donald. *Roman Corinth: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Classical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 Furnish, Victor Paul. *II Corinthians: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YB 32A.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4.
- Garland, David E. *2 Corinthians*. NAC 29. Nashville: B&H, 1999.
- Green, Gene L. "Achaia."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Edited by Joel B. Green and Lee Martin McDonald. Grand Rapids: Baker, 2013.
- Gupta, Nijay. "Mirror-Reading Moral Issues in Paul's Letters." *Th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4 (2012): 361–81.
- Guthrie, George H. *2 Corinth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2015.
- Harris, Murray J.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 Herodotus. *Herodotus: The Histories*. Revised Edition. London: Penguin Classics, 1996.

- Hubbard, Moyer V. "Greek Religion."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Edited by Joel B. Green and Lee Martin McDonald. Grand Rapids: Baker, 2013.
- Kruse, Colin G. *2 Corinthian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NTC 8. Downers Grove, IL: IVP, 1987.
-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Volume I: Books 1-2 (Attica and Corinth)*. Translated by W. H. S. Jones. Loeb Classical Library 93.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18.
- Perrin, Nicholas. "The Imperial Cult."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Edited by Joel B. Green and Lee Martin McDonald. Grand Rapids: Baker, 2013.
- Porter, Stanley E. *The Apostle Paul: His Life, Thought, and Letters*. Grand Rapids: Eerdmans, 2016.
- _____. "바울 서신서의 대적자들에 대한 분석 방법과 도구." 이재현 역. 『신약연구』, 제9권 제4호(2003): 391-419.
- Seifrid, Mark A. *2 Corinthians*.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14.
- Strabo. *Geography, Volume I: Books 1-2*. Translated by Horace Leonard Jones. Loeb Classical Library 49.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17.
- Sumney, J. L. *Identifying Paul's Opponents: The Question of Method in 2 Corinthians*. JSNTSup 40. Sheffield, UK: JSOT Press, 1990.
- Thiselton, Anthony C.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0.
- 조광호. "고린도후서는 여러 편지들의 모음인가?" 『신약논단』, 제10권 제2호 (2003): 391-419.
- 조재형. "영지사상에서 살펴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적대자." 『신약논단』, 제20권 제2호 (2013): 443-78.

고린도후서 해석과 강해

황원하 박사
Ph.D.
신약학
산성교회 담임

1:1-11 모든 위로의 하나님

1-2절 : 서두

바울 서신의 서두에는 일반적으로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나온다. 바울은 고대 그리스-로마 서신의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 서신의 발신자는 바울이다. 디모데는 대필자로 보인다. 디모데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세울 때 함께 있었다. 바울은 사도직을 언급한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이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신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이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3-7절 : 하나님을 찬송함

이 단락은 바울의 체험적 진술이다. 그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을 말한다. 3절은 유대교 회당에서의 하나님 찬송(예전)을 기독교식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넘치게 받았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8-11절 : 지난 삶을 회고함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이것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을 암시하는 것 같다(참고. 행 19:23 이하).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비롯하여 그분의 자녀들을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1:12-22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12-14절 : 바울이 자신을 자랑함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비난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좋지 않게 생각한 이유는 바울이 인간적인 이득을 추구한다고 생각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방문하지 못한 것을 오해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불신과 오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15-22절 :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이유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는 길에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하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는 고린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헌금을 모아 예

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전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 들어서 헌금을 모금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자, 흠 찾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울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모함했다. 바울은 자신의 행동의 의로움과 정당성이 주 예수님의 날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1:23-2:13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비방을 받았다. 그는 이후에 고린도를 방문할 것이다.

23-24절 :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감과 정당성과 각오를 전제한다. 그가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즉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아마도 자신과 교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있을 것을 염려했던 것 같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방문을 지체함으로 그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했다.

2:1-11절 :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

일전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기보다 편지를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를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교인 전체를 근심하게 했다. 이는 지도자를 향한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았다. 이는 교회의 공적인 치

리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 교회의 치리는 벌을 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치리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12-13절 : 마게도냐 방문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가 드로아에 간 목적은 디도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으나,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왔다.

2:14-3:18 새 언약의 일꾼들

14-17절 :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14절은 로마시대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사들의 개선 행진을 연상하게 한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번역한다. 냄새를 나타낸다는 말은 개선 행진을 할 때 향이 나는 의식을 행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군사들이 지나갈 때 길에 꽃을 뿌려 놓으면 말이 지나가면서 꽃을 짓이겨 강한 향기가 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함으로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7절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라는 표현은 바울이 거짓 선생들과 달리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했으며 말씀을 전함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3:1-6절 : 너희는 우리의 편지

바울은 ‘추천서’에 대해서 언급한다. 주후 1세기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추천서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 이유는 2절 이하에 나온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이 쓴 편

지를 읽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자신의 편지, 즉 자신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7-11절 : 옛 언약과 새 언약

‘돌에 쓴 율법 조문’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 그러나 영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생명을 전해 준다. 이 단락은 출애굽기 34:29-35를 배경으로 한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배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을 보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광채보다 더욱 큰 광채를 가지고 있다. 고대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12-18절 : 수건을 벗은 삶

모세는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다. 여기서 수건이란 그들의 제한적인 지식과 이해를 상징한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백성들은 수건을 벗고 율법을 바로 이해함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주님을 더욱 선명히 본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즉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영(성령)이 행하신다.

4:1-18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고난을 견디는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환난과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가

받은 고난을 다 모으면 정말 인간으로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말이다.

1-6절 : 직분자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바울이 직분을 수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소명의식 때문이었다. 그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떤 자세로 했는지 언급한다. 즉 숨은 부끄러움의 일(죄)을 버리고, 연보를 모금하는 일과 관련하여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는데, 이는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며 그만두고 싶었으나 복음이 광채를 비추어 주기에 이 일을 계속해야 했다.

7-18절 : 직분자의 고난과 시련

바울은 “이 보배”(복음)를 “질그릇”(복음 전도자)에 담았다고 말한다. 그의 삶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감춘다. 오로지 보배를 드러내려고 노력한다. 그는 복음 전도자가 받는 고통을 언급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위하여 직분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5:1-10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여기서 주제가 변환된다. 4장은 직분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말했는데, 5장은 직분자가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언급한다. 바울은 살아 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죽음이 두렵긴 하지만 신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얻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이 세상

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5절 :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함

신자는 약하고 일시적인 장막을 떠나 튼튼하고 영원한 하늘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이다. 1절은 집 이미지이며, 2절은 옷 이미지로 나아간다. 이것들은 모두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다. “탄식하며”는 4절에서 반복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고달프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간절히 사모하노라”라는 말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암시한다. 바울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6-10절 : 주님과 떨어져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함

6절에서 단락이 바뀌면서 논조가 약간 달라진다. 앞에서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살아 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며, 시행착오를 경험한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11-21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바울은 4:1-5:10까지 논의한 내용을 이 단락으로 연결한다. 여기서 그는 신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한다.

11-15절 : 바울의 사역 동기

바울은 주님을 두려워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살았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고

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반대세력(거짓 선생)을 거부하기를 원한다. 그는 고린도에서 미쳤다는 조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가 전심으로 일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었다.

16-21절 : 바울의 사역 내용

바울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한 삶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곧 직분자는 화목을 이끌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 결과를 말한다(21절).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한다.

6:1-10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바울은 바른 말씀의 가르침 위에 있을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이다. 거짓 선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이 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대가를 치른다. 그것은 고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외적인 박해를 참고 견디면서 내면적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병기를 좌우에 가져야 한다.

1-2절 : 고린도 교인들의 결단을 촉구함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한다. 이것은 거짓 선생들

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그는 이사야 49:8을 인용하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한 것을 선포했다(회개 촉구). 이처럼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려 하니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3-7절 : 그리스도의 일꾼이 치르는 대가

바울은 논조를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치르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한다. 직분이 비방을 받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영향을 미친다. 즉 바울의 사도권 훼손은 그가 전한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특히 직분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그런데 직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8-10절 :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변론

이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여기에 나오는 소극적이면서 부정적인 용어들은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비방한 내용이다. 9-10절은 대조이다. 즉 속이는 자, 참된 자 / 무명한 자, 유명한 자 / 죽은 자, 살아 있는 자를 대조한 것이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비난했으나 바울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바울의 교만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한 말씀의 합당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7:5-16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소감을 말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수고와 중재가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웃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이 되지 말아야 한다.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도 되지 말자. 남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안겨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5-7절 :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심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렸다. 거기서 그는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다. 그는 총체적 고통을 겪었는데,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으며 밖으로 다투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 특히 하나님께서 디도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심으로 큰 위로를 주셨다. 더욱이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환대를 받았으며 그가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다 주었기에 기뻐했다.

8-12절 :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교인들을 깨우치기를 원함

바울은 이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현재 사라지고 없다. 그것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린다(참고 2:4). 그 편지에는 바울의 책망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낸 후에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여 후회했다. 자신이 너무 심하게 나무라지 않았나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사로운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었다. 오직 교인들을 바로 세워주려는 의도(고린도 교인들의 바른 신앙 성장)를 가진 것이었다. 실제로 교인들은 편지를 받고 난 후에 잠시 근심했으나 결국 변화되었다.

13-16절 : 바울이 위로를 받고 기뻐함

이 단락은 5-7절을 반복한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받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고 깨우치자 위로를 받는다. 게다가 디도의 기쁨(고린도 교인들의 환대를 의미)으로 더욱 많이 기뻐한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해 주었던 말을 언급한다. 그는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그들의 회개와 구원이 바

울의 체면을 세워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디도를 두려움과 떨 것으로 영접하여 순종했다. 디도는 이 일을 생각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9:1-15 심은 대로 거둔다

1-5절 : 연보는 미리 준비해야 함

1절의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연보(구 제금, 8:4)를 뜻한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달리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1년 전부터 아가야에서 이 일을 시작했고, 고린도 성도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참고, 8:10). 그는 형제들을 고린도에 먼저 보내어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끔 권면하려고 한다.

6-15절 : 연보한 자가 받는 복

연보는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연보는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나님은 연보 드린 자에게 크게 보상해 주신다. 따라서 연보의 액수보다 연보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연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과 형태 그대로 해야 한다. 9절은 시편 112:9를 인용한 것이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뜻이다.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다. 10절은 이사야 55:10을 인용한 것이다. 하나님은 심은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을 것과 양식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며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당시에(주후 46년에 시작)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기에 더욱 일자리를 잃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했다. 오로지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움을 주어야 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 지역에서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10:1-18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라

1-11절 :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함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모략하며 헐뜯는 자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반박한다. 먼저,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다. 이는 자신의 인격적 위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말씀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도자(영적인 부모)이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별하므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

12-18절 :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라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들과 자신을 같이 두거나 비교할 생각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척도로 자기를 재고 자기가 세운 표준에다 자기를 견주어보고 있으니 너무나 어리석다. 신자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누어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해야 한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을 지녔다. 그러나 자랑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 해야 한다.

11:1-15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1-6절 : 바울과 거짓 선생들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한다. 이는 그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 즉 자신을 자천하는 것을 이해하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그가 거짓 선생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

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긴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이 소유한 지식이 바르고 풍성하다는 것이다.

7-11절 : 바울은 고린도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물질적인 지원(생활비)을 받지 않았다. 즉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천막 만드는 일, 행 18:1-4). 그런데 바울이 항상 자비량으로 일했던 것은 아니다. 고린도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만 그렇게 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12-15절 : 거짓 선생들의 정체 폭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들은 거짓 사도이며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사탄의 일꾼들은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속인다. 필시 교회에 거짓 선생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역사상 항상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11:16-33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6-21절 : 바울의 자랑

바울은 다시금 자신을 해명한다. 그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한다. 따라서 그는 지금 부득불 자랑한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한다. 팔불출 소리

를 듣더라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우리가 악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라는 말은 자신이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맞다는 뜻이다. 즉 자신은 여러 면에서 불품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담대하다.

22-33절 : 바울의 수고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힌다. 이것은 거짓 선생들이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비판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한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많은 고난을 당했다. 여행할 때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오랜 기간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 없는 고생을 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 그가 고생한 것의 극히 일부를 접할 수 있다. 이것 외에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부활의 능력과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

12:1-13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1-6절 : 셋째 하늘에서 환상과 계시를 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한다. 그는 거짓 선생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로서 자신을 변호한다. 최소한도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야 할 필요성 느낀다. 그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이는 거짓 선생들의 공격 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수님 이후에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니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하늘나라에 다녀온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한다.

7-10절 : 육체에 가시를 주심

바울에게는 아픔이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마련해 놓으신 장치였다. 그는 교만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스콜롭스)를 주셨다.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른다. 필시 그를 상당히 고통스럽게 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것을 없애 달라고 세 번 간구했다. 이는 충분히 기도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 이때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는 자신이 약한 그때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1-13절 : 사도의 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며,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열두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가 ‘사도의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수고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는 증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는 다른 곳에서 생활비를 받았으나 고린도에서 받지 않았는데, 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덜 사랑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이다.

12:14-21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14-15절 : 바울의 관심

바울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라고 말한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한다. 앞의 두 번의 방문은 2차 전도 여행(행 18:1)과 근심 중

의 방문(고후 2:1)이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교인들에게 연보를 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는 말을 공동번역은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까’라고 번역한다. 이는 바울의 안타까움을 반영한다. 그는 언젠가 교인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16-18절 : 바울의 자기변호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중상모략하며 비방한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인을 도우려 하는 것을 곡해하여 바울이 돈을 모아서 자기가 가져가려 한다고 비난한다. 또한, 바울이 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에 가져다주면서 자기가 준 것처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돈을 탐하지 않았고, 그와 동역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오로지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덕이 되며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19-21절 : 바울의 당부

바울은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한다. 인간적으로 그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각 지역교회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가서 말씀으로 교회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21절의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변하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고 중상모략(수모, 굴욕)한 것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치리(출교)함으로 그 자신이 고통과 수치를 느낀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문맥상 두 번째 의미가 더 그럴듯하다. 바울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란다.

13:1-13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1-4절 : 회개를 촉구함

바울은 고린도에 직접 가서 보고 양육하려 한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라는 말은 판결을 위해서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참고. 신 19:15). 이것은 공의로운(정확한) 판결을 위한 장치이다. 즉 편견이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바울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그는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죄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다.

5-10절 :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라는 말은 자신을 돌아보는 뜻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이다. 그러나 바울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음을 강조한다. 10절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요약한 것이다. 그는 권징을 남발하고 벌을 주면서 사람을 곤란하게 하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사람이 행한대로 벌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다.

11-13절 : 바울의 축복

바울은 부드러운 축복으로 서신을 끝맺는다. 기쁨, 온전함, 위로, 연합, 평안은 교회의 속성을 반영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축복이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은 당시의 일반적인 인사법을 “거룩하게”를 붙여서 기독교화한 것이다(참고. 롬 16:16; 고전 16:20). 바울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문안한다는 말은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문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후서의 이슈와 난제

변종길 은퇴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은퇴교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과 고뇌가 흠뻑 젖어 있는 편지이다.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목회적 고뇌와 인간적 갈등이 많이 배어 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고린도후서만큼 그의 개인적 고백과 탄식과 간절함이 잘 드러나 있는 편지는 없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 고린도후서가 언제, 어떤 계기로 기록되었는지, 오늘날 남아 있지 않은 잃어버린 편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소위 ‘눈물의 편지’(고후 2:1-4)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바울의 고린도 방문(소위 ‘중간 방문’)이 언제 있었는지 등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해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1 M. J.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1.

고린도후서와 관련한 몇몇 문제들에 대해 필자가 쓴 것이 두 개² 있는데, 이것들을 여기에 활용하면서 좀 더 보완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중간 편지’(소위 ‘눈물의 편지’), ‘중간 방문’, ‘실행되지 않은 여행 계획’, ‘고린도후서의 기록 시기’, ‘고린도후서의 중심 사상’ 등이다.

1. 중간 편지(눈물의 편지)

사도 바울은 정경(正經)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외에 지금 보존되지 않은 다른 편지들을 써서 고린도에 보내었다. 고린도전서 5:9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ἐγράψα ὑμῖν ἐν τῇ ἐπιστολῇ…)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있었음이 확실하다. 많은 학자들은 이 외에 고린도후서 2:3-4에서 말하는 ‘중간 편지’(Zwischenbrief) 또는 ‘눈물의 편지’(Tränenbrief)가 있었다고 본다.³ 영어로는 ‘비통한 편지’(Severe Letter) 또는 ‘고통의 편지’(Painful Letter)로 부르기도 한다.⁴ 바울은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한다(고후 2:4).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잠시 근심하게 하였으나 그 근심이 그들로 회개함에 이르게 하였다(고후 7:8-11). 그리하여 바울은 이제 ‘그 불의 행한 자’를 용서하라고 한다(고후 2:7-8).

이 ‘눈물의 편지’가 어느 것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상 여섯 가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전에 쓴 편지’ 이전의 또는 고린도전서 이전의 잃어버린 편지; 2) ‘전에 쓴 편지’(고전 5:9, 11); 3) 고린도전서; 4)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의 잃어버린 편지; 5) 고린도후서 10-13에 부분적으로

2 변종길, “고린도후서 개관”, 『프로 에클레시아』 23 (2013 봄; 제12권 1호, 프로에클레시아신학회), 12-32; 변종길, 『신약 총론』 (대구: 말씀사, 2020), 262-74.

3 P. Feine-J. Behm,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8. Aufl. (Leipzig: Quelle & Meyer, 1936), 153.

4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3.

보존된, 1-9장보다 앞서 기록된 편지; 6) 고린도후서.⁵ 이 중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3)과 4)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기록된,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편지로 본다.⁶ 그러나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전서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고대의 주석가들 대부분이 이렇게 보았으며,⁷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대개 이렇게 보았다.⁸ 예를 들면, J. H. 버나드(Bernard)는 고린도전서의 전반부(1-6장)는 고린도후서 2:4와 7:8, 12의 ‘고통의 편지’와 잘 들어맞는다고 한다. 즉, 고린도전서 1-4장은 분열에 대한 경고를, 5, 6장에는 육신의 죄에 대한 강한 책망을 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7-16장은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에 답하는 성격의 것으로 ‘부록’과 같다고 한다. 고린도전서 전반부, 특히 5, 6장은 ‘매우 심각하다’(extremely severe)고 한다. 고린도후서 2:4과 7:8의 언어는, 고린도전서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심각하거나 고린도 교회에 예기치 못한 고통을 주었다면 충분히 설명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⁹

그러나 해리스(Harris)에 의하면, 이 주장은 비록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견해는 아니지만 포기해야만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눈물의 편지’는 전체적으로 ‘불의를 행한 자’와 그 사람을 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를 더 제시하고 있다.¹⁰ 그러나 그 논거들은 다 추론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개혁주의 주석가인 흐로쉐이드도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해 고린도전서와

5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5.

6 Feine-Behm, Michaelis, Kümmel, Barnett, Harris, Grosheide, Greijdanus, Van Spanje 등.

7 Chrysostom, Ambrosiaster, Theodoret, Theophylact 등.

8 Meyer, Denney, Heinrici, Stephenson, Lampe, Hyldahl, Hughes 등.

9 J. H. Bernard,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in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ed. W. R. Nicoll, III (Grand Rapids: Eerdmans), 7f., 13f.

10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6-7.

후서 사이의 분실된 편지로 본다.¹¹ 고린도전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은 그 전서에서 바울이 많이 책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교회에 대해 특별한 불안한 염려를 보여 주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린도후서가 아닌 것은 거기에는 기쁨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¹² 흐레이다너스도 ‘중간 편지’를 말하는데,¹³ 흐로쉐이드의 견해와 거의 같다. 곧, 바울은 중간 방문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 눈물과 답답한 마음으로 날카로운 편지를 썼다고 한다(고후 2:4).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는 많은 책망과 권면을 하고 있지만 또한 감사할 제목이 많았기(고전 1:4) 때문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논거들을 더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흐로쉐이드가 말한 것과 거의 같다.

박윤선 박사는 그의 고린도후서 주석에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 하고 지나간다.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를 가리켰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Lenski), 다수의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그 밖에 다른 것으로서 분실(紛失) 되었다고 한다.”¹⁴ 그러면서도 바로 앞에서는, 고린도후서 2:3에 대해 “이같이 썼다 함은, 고린도 교회더러 범죄자 징계(고전 5:1)를 권유하는 편지를 염두에 둔 말이다.”고 한다.¹⁵ 이것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전서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박윤선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일관성이 없다.

판 브루헌 교수의 제자인 판 스파너(T. E. van Spanje)도 오늘날 대다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중간 방문’ 후에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본다.¹⁶

-
- 11 F. W. Grosheide, De tweede brief aan de kerk te Korinthe (CNT), 2e dr. (Kampen: J. H. Kok, 1959), 12.
 12 같은 곳.
 13 S. Greijdanus, Bizondere Canoniek van de boeken van het Nieuwe Testament, II (Kampen: J. H. Kok, 1949), 71-73.
 14 박윤선, 『성경주석 고린도전후서』 (서울: 영음사, 1991), 301 (고후 2:3 주석 중).
 15 박윤선, 『고린도전후서』, 300f.
 16 T. E. van Spanje, 2 Korintiërs. Profiel van een evangeliedienaar (CNT-3) (Kampen: J. H. Kok, 2009), 19-22.

그가 제시하는 사건 재구성은 다음과 같다. 바울이 ‘중간 방문’을 마치고 작별할 때 조만간 다시 올 것을 약속하였다(고후 1:15-16; 13:2).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위해 계획된 방문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후 1:23).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전에 ‘중간 방문’ 때 자기를 공격했던 ‘불의를 행한 자’를 벌하기를 요구하였다(고후 7:11-12).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범사에 바울에게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원했다. 이 ‘눈물의 편지’는 디도가 가지고 갔으며, 그가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다(고후 2:12-13; 7:5). 곧,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였으며(고후 7:7, 9), 그 불의를 행한 자에게 권징을 실시하였다(고후 2:6; 7:11). 이 ‘눈물의 편지’와 디도의 중재 노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회복되고 정상화되었다.¹⁷

판 스파녜의 이러한 사건 재구성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시나리오이며 그럴듯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확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 물론 반대할 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다. 위 재구성과 오늘날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대개 고린도후서 7:12의 ‘그 불의 행한 자’를 (중간 방문 때) 사도 바울을 공격한 자로, ‘그 불의 당한 자’를 바울 자신으로 본다.¹⁸ 그러나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전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그 불의 행한 자’(ὁ ἀδικήσας)를 고린도전서 5:1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로 보고 ‘그 불의 당한 자’(ὁ ἀδικηθείς)를 ‘그 불의한 아들의 아버지’로 본다.¹⁹ 1637년에 나온 화란국역(Statenvertaling)의 고린도후서 7:12의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해 난하주에서 ‘근친상간죄를 범한 사람’ 또는 ‘형제를 불신 재판관 앞에 고소한 자 또는 잘못 행한 자’라고 설명하고

17 Van Spanje, 2 Korintiërs. 20-21.

18 Harris, Barnett, Grosheide, Van Spanje 등. 또한 M. E. Thrall,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ICC), 1 (Edinburgh: T. & T. Clark, 1994), 496; R. P. Martin, 2 Corinthians (WBC), 2nd ed. (Grand Rapids: Zondervan, 1986), 406 등.

19 Bernard, 2 Corinthians, 83; M.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in One Volume, ed. by L. F.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61), 1829.

있다.²⁰ 그러나 쿼멜(Kümmel)은 고린도전서 5장의 근친상간죄를 범한 사람을 고린도후서 2:5과 7:12의 ‘불의를 행한 자’와 동일시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²¹ 고데(Godet)도 이 ‘불의를 당한 자’를 바울 자신으로 보며 근친상간죄를 범한 자의 아버지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불의를 행하다’(ᾀδουκείν)는 단어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범한 죄를 가리키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²² 그러나 찰스 하지(Charles Hodge)에 의하면, ‘불의를 당한 자’를 바울 자신으로 보거나 또는 ‘고린도 교회 전체’로 보거나 ‘불의한 행동’으로 보는 해석은 부자연스러우며 불필요하다고 한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해진 것은 그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가정과 잘 들어맞는다고 한다.²³ 렌스키(Lenski)는 여기의 ‘불의를 당한 자’가 몇몇 고린도 교인들에 의해 모욕을 당한 바울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모욕’(ἰβρίσας)과 ‘모욕을 당한 자’(ἰβρισθείς)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한다.²⁴ 고린도후서 2:5과 7:12의 ‘불의를 행한 자’(the Offender)와 ‘불의’(the Offence)에 대해 논거들을 검토한 논문²⁵을 쓴 C. G. 크루즈(Kruse)는 이 ‘불의 행한 자’를 고린도전서 5장의 근친상간자(the incestuous person)로 본다. 그리고 그 행해진 ‘불의’는 바울의 고린도 중간 방문 때에 바울과 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개인적 공격이었다고 한다. 크루즈의 견해는 ‘그 불의 행한 자’를 고린도전서 5장의 근친상간자로 보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고대 주석가들의 견해와 일치하지만, ‘그 불의 당한 자’를 바울로 보는 점에서는 다르다.²⁶

20 Bijbel dat is de gansche Heilige Schrift (Houten: Den Hertog, 1980), 354 kantt. 32.

21 W. G. Kümmel,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rev. ed., tr. by H. C. Kee (Nashville: Abingdon, 1981), 283.

22 F. Godet,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tr. by W. Affleck (Edinburgh: T. & T. Clark, 1894), 323f.

23 Ch. Hodge, A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3), 187.

24 렌스키, 『고린도후서』, 채영철 역 (서울: 백합출판사, 1980), 266.

25 C. G. Kruse, “The Offender and the Offence in 2 Corinthians 2:5 and 7:12,” The Evangelical Quarterly 60/2 (April 1988), 129–39.

26 Kruse, “The Offender and the Offence,” 131f.

V. P. 퍼니쉬(Furnish)는 이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의 ‘불의를 행한 자’를 고린도전서 5장의 사람과 일치시킬 수 없는 이유 아홉 가지를 제시한다.²⁷ 그러나 이 논거들은 고린도전서 5장과 고린도후서 2장의 본문은 표면상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설득력 있게 여겨지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 불의 당한 자’는 바울 자신이라는 견해를 여섯 가지 논거와 함께 제시한다.²⁸ 이 역시 다 추측에 불과하며 확실하지는 않다.

바울이 자신을 ‘그 불의 당한 자’로 표현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왜 그냥 ‘나’라고 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대개 ‘우리’라고 말하지만 ‘나’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할 때도 있다(1:17, 19, 23; 2:1, 2, 3, 5, 10, 12, 13; 10:1; 11:1, 9, 10, 16, 21, 22, 23, 29, 30, 32; 12:6, 9, 13, 15, 16, 21; 13:3, 10 등). 특히 ‘눈물의 편지’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2:1-3에서 바울은 줄곧 ‘나’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7:12에서는 ‘그 불의를 행한 자’를 먼저 말했으니 이어서 수동태로 자기를 말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12절에서는 ‘그 불의를 행한 자’와 ‘그 불의를 당한 자’를 말하고 나서 ‘우리’를 말한다. 바울은 여기서 ‘그 불의를 행한 자’, ‘그 불의를 당한 자’,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불의를 당한 자’는 아무래도 ‘우리’와는 구별되는 제3자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물론 확실히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불의를 당한 자’가 바울 자신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²⁹

27 V. P. Furnish, II Corinthians (Anchor Bible 32A) (New York: Doubleday & Co., 1984), 164-66.

28 Furnish, II Corinthians, 166-68.

29 H. Windisch도 약 100년 전에 필자와 비슷한 생각을 피력하였다. 비록 고후 7:12의 ‘불의 당한 자’를 바울로 보는 견해는 지배적인 견해이며 문맥에서나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럴듯한 견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이의(異義)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다섯 가지 논거를 제시한다. 그 중 첫째가 만일 ‘불의를 당한 자’를 바울로 보면 ‘우리를 위하여’가 ‘나 곧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하여’가 되어서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해 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논거는 evgw가 없이 o` avdikhqei,j를 사용하여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은 매우 희귀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Windisch는 이 ‘불의 당한 자’를 바울의 측근(디모데)으로 본다. Cf. H. Windisch, Der zweite Korintherbrief (Meyer Kommentar VI), 9.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4), 238f.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간 편지’ 곧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느 것을 가리키는가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있다. 다수의 학자들과 또한 대표적인 개혁주의 주석가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기록된 ‘중간 편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견해를 존중하지만, 다른 한편 고린도전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를 완전히 배척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남아 있다.

2. 중간 방문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중간 방문’(Zwischenbesuch) 또는 ‘고통스런 방문’(Painful Visit)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것은 두 번 나온다. 제2차 선교여행 때(18:1-17)와 제3차 선교여행 때(20:1-3)이다. 그런데 이 두 기간 사이에 바울이 또 한 번 고린도를 방문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3:1에서 바울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라고 말한다. 이어서 2절에서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2:14에서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라고 말한다. 따라서 고린도후서에서 예고하고 있는 방문은 ‘세 번째’ 방문이며 사도행전 20:1-3에 기록된 방문이다.³⁰ 그렇다면 두 번째 방문 곧 ‘중간 방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돌아온 짧은 방문이었을 것이다. 에베소에서 배로 고린도로 향해하는 데에는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한다.³¹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긴급한 문제를

30 Grosheide, 2 Korinthe, 8-9.

31 Bernard, 2 Corinthians, 5.

해결하기 위해 배로 고린도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보아야 한다. 흐로셰이드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비통한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서 아가야의 수도(고린도)를 짧게 방문하게 했다고 본다.³²

그런데 이 중간 방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있었는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테오돌 찬에 의하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에베소 사역의 초기 곧 55년 여름이나 가을 또는 56년 봄에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고 본다.³³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흐로셰이드에 의하면 유지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이 또 한 번 더 고린도를 방문하였다면, 그것에 대해 고린도전서가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³⁴ 그러나 테오돌 찬은 ‘침묵으로부터의 논증’(argumentum e silentio)은, 만일 이 방문이 바울의 에베소 체재 초기에 있었다면, 매우 약하다고 한다.³⁵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이후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전에 중간 방문이 있었다고 본다.³⁶ 이들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2:1의 ‘슬픔 가운데 나아간 것’으로 연결시켜 이해한다. ‘근심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비통한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슬픔 가운데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첫 번째 방문(행 18:1-3)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방문은 복음을 전하러 처음 간 것이었으므로 ‘근심 중에 나아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32 Grosheide, 2 Korinthe, 10.

33 Th. Zahn,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3. Aufl. (Leipzig: Deichert, 1906/1907; Nachdruck 1994), Teil I, 195 (A. 14). 그의 견해는 바울의 고린도 도착 시기를 52년 10월로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I, 183). 그러나 이 연대는 2년 반 정도 늦은데, 그것은 그가 아직 델피(Delphi) 비문에 대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에 발견되고 1907-1908년에 와서야 그 중요성이 인식된 델피 비문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것은 51년 하반기로 추정되며 그러면 고린도에 도착한 것은 50년 상반기로 생각된다. Cf. 변종길, 『신약 총론』, 244-46.

34 Grosheide, 2 Korinthe, 9f. 또한 Kümmel, Introduction, 282.

35 Zahn, Einleitung, I, 195 (A. 14).

36 Harris, Barnett, Kümmel, Grosheide, Van Spanje 등.

두 번째 방문이다.³⁷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다급한, 근심을 끼치는 일이 있어서 바울이 배로 고린도를 잠깐 방문하고 돌아왔으며(‘중간 방문’),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며”(고후 2:1), 그 대신에 편지를 쓴 것(고후 2:3-4)이 ‘중간 편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중간 편지’를 고린도전서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7:12의 ‘그 불의 행한 자’와 ‘그 불의 당한 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것이 남아 있다.

3. 실행되지 않은 여행 계획

고린도후서 1:15-16에서 바울은 실행되지 않은 여행 계획에 대해 말한다.³⁸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은 처음에는 에베소 → (배로) 고린도 → 마게도냐 → 고린도 →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다. 즉,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다(고후 1:23). 이처럼 원래 계획이 실행되지 않거나 수정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경솔하게 인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고후 1:17, 23).

그런데 고린도전서 16:3-9에 보면 바울은 또 하나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 가서 머물며 겨울을 지나고 나서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 (혹 가능하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한다. 에베소 → 마게도냐 → 고린도 →

37 Grosheide, 2 Korinthe, 10.

38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신약 총론』, 266을 보라.

(배로) 예루살렘.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었으며 변경되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⁹

계획 A (고전 16장) : 에베소 -> 마게도냐 -> 고린도 -> 예루살렘 (혹 바울도 같이)

계획 B (고후 1장) : 에베소 -> 고린도 -> 마게도냐 -> 고린도 -> 유대

계획 C (고후 1장) : 에베소 -> 마게도냐 -> 고린도 -> 유대

실제여행 (행 20장) : 에베소 -> 마게도냐 -> 헬라(고린도) -> 마게도냐 -> 예루살렘

계획 A에서 계획 B로 변경되게 된 것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뭔가 긴급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⁴⁰ 그래서 바울은 급히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기로 결심하였을 것이다. 판 스파냐에 의하면, 바울은 중간 방문이 있기 전에 계획 A를 연기하였으며, 실망스런 중간 방문으로 인하여 계획 B를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고후 1:15의 '계획하였다'). 바울은 중간 방문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날 때에 이 계획 B를 알려 주었다고 한다.⁴¹

바울의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바울이 적어도 한 번의 '중간 방문'을 했던 것은 확실하며(고후 12:14; 13:1, 2; cf. 2:1-4), 이 방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오는 여행이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이 바울의 여행 계획을 바꾸게 하였을 것이다.

39 Cf. Van Spanje, 2 Korintiërs, 13, 계획 C와 실제 여행은 필자가 추가한 것임.

40 Van Spanje, 2 Korintiërs, 13.

41 Van Spanje, 2 Korintiërs, 14.

4. 고린도후서의 기록 시기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언제 있었던 것일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각각 언제 기록되었으며 중간 방문과 중간 편지는 언제 기록된 것일까? 이런 연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Claudius) 황제의 추방령과 델피(Delphi) 비문(碑文)의 발견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정확한 연대 추정이 가능하여졌다.⁴²

우선 도널드 거쓰리는 57년 봄에 고린도전서가, 그 해 10월에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8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린도전서 16:3-6에서 말하는 여행 계획이 사도행전 20:1-3에서 말하는 여행 경로와 잘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체재 말기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고 본다. 따라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약 7개월간의 간격을 두고 같은 해에 기록되었다고 한다.⁴³ 그러나 이렇게 보면 이 사이에 ‘중간 방문’과 ‘중간 편지’가 있었다고 보기에 기간이 너무 빠듯하다(물론 이것들이 고린도전서 기록 이전에 있었다고 본다면 상관없지만).

그러나 요스 켈러르스는 고린도전서 16:8의 “오순절까지 머물러 한다”는 말은 고린도전서의 기록 시기를 추정하는 데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바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했지만, 에베소에서 계속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2년 정도 더 머물렀다고 본다.⁴⁴ 흐로쉐이드는 고린도전서 16:8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바울의 에베소 체재 말기에, 데메드리오에 의한 소요 이전에, 오순절에서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54년 상반기 또는 늦어도 55년 상반기에 기록

42 이에 대해서는 변종길, 『신약 총론』, 244-46를 참조하라.

43 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4th ed. (Leicester: Apollos &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0), 458f.

44 J. Keulers, *De brieven van Paulus, I* (Roermond en Maaseik: J. J. Romen & Zonen, 1953), 179.

되었으며,⁴⁵ 고린도후서는 디모데와 디도의 여행, 중간 방문과 중간 편지 등을 고려하여 56년 또는 57년에 기록되었다고 본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연대 추정은 그가 말한 ‘바울의 에베소 체재 말기’라는 말과 조화되지 않는다. 54년 또는 55년은 에베소 체재의 ‘말기’가 아니라 ‘초기’ 또는 ‘중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쾰러르스의 주장처럼 고린도전서 16:8의 계획은 사정에 의해 연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판 스파너는 고린도전서는 55년 오순절 조금 전에,⁴⁷ 고린도후서는 56년 하반기경에⁴⁸ 기록되었다고 본다. 그는 바울의 에베소 체류는 53년 초에 시작해서 56년 하반기에 끝났다고 본다. 그리고 56-57년 겨울 석 달을 고린도에서 보냈다고 본다.⁴⁹ ‘중간 방문’은 55년 중반에, ‘중간 편지’는 ‘중반 방문’ 후에 약간의 진정 기간을 가진 후인 56년 상반기로 본다.⁵⁰ 판 스파너의 연대 추정은 조심스럽게 잘 정리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3차 선교여행 기간에 대해서는 스파너처럼 52-57년으로 보기도 하고, 아하로니-아비 요나처럼 53-58년으로 보기도 하고,⁵¹ 보 라이케처럼 54-58년으로 보기도 한다.⁵² 이처럼 정확한 연대 추정은 어려우며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필자는 52(53)-58년으로 보는 것을 선호한다.⁵³ 그리고 에베소 체제 기간을 필자는 54-57년으로 본다. 왜냐하면 안디옥을 떠나(52/53년)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행 18:23),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도착하기까지(행 19:1) 제법 시일이 소요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5 F. W. Grosheide, De eerste brief aan de kerk te Korinthe (CNT), 2e dr. (Kampen: J. H. Kok, 1957), 26.

46 Grosheide, 2 Korinthe, 22.

47 Van Spanje, 2 Korintiërs, 25.

48 Van Spanje, 2 Korintiërs, 24.

49 Van Spanje, 2 Korintiërs, 26.

50 Van Spanje, 2 Korintiërs, 26.

51 요한안 아하로니-미카엘 아비요나, 『아가페 성서지도』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155.

52 B. Reicke, Neutestamentliche Zeitgeschichte, 3. Aufl. (Berlin: W. de Gruyter, 1982), 221.

53 Cf. 변종길, 『신약 총론』, 252, 227-28.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체류가 54년 초에 시작해서 57년에 끝났다고 보면 고린도 체류는 57-58년 겨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의 기록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있을 때인 57년의 어느 시점이 될 것이며, 고린도전서는 54-57년의 어느 시점이 될 것인데, 중간 방문과 중간 편지를 생각하면 그 기간 중 조금 이른 시기가 될 것이나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알로(E. B. Allo)는 고린도전서에 대해 55년경으로, 고린도후서에 대해 57년경으로 본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10과 9:2의 avpo. pe, rusi(작년부터)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경과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 ‘적어도 1년 반’의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⁵⁴ 그러나 avpo. pe, rusi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정확한 시기 규정은 어렵다.⁵⁵ 하지만 알로(Allo)의 견해는 필자가 볼 때 사실에 근접한 견해로 생각된다.⁵⁶

5. 고린도후서의 중심 사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가 『신약 총론』에 쓴 것을 약간 축소하여 거의 그대로 옮겼다.⁵⁷ 이 부분은 또한 흐로셰이드의 주석⁵⁸을 많이 참조하였다.

고린도후서의 특징 또는 중심 사상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렇지만 그래도 고린도후서에 어떤 주제가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54 E. B. Allo, *Seconde épître aux Corinthiens*, 1937, LVII-LX (Greijdanus, Bizondere Canoniek, II, 69에서 재인용).

55 Cf. H. Lietzmann, *An die Korinther I, II*, ergänzt von W. G. Kümmel (Tübingen: J. C. B. Mohr, 1969), 135.

56 흐레이다너스의 견해는 에베소 체재 기간을 52-55년으로 보기 때문에(Bizondere Canoniek, II, 46) 너무 빠르다.

57 변종길, 『신약 총론』, 267-71.

58 Grosheide, *2 Korinthe*, 30f.

1) 위로

고린도후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위로’이다. 바울은 이 편지의 본문을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요 자비의 아버지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지요”(3절). ‘모든 위로’라는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 4절은 계속해서 ‘위로’에 대해 말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7절도 위로에 대해 말한다. 8-10절에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말하는 것도 그가 당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셨으며,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2장 7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의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 하노라.”고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εἰς αὐτόν)⁵⁹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한다(8절). 7장 6절에서도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한다. 왜냐하면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모하고 애통해하며 또 바울을 위하여 열심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기 때문이다(7절). 그래서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고 말한다(13절). 편지 말미에서 바울은 다시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고 말한다(13:11).

이처럼 고린도후서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근심과 염려, 슬픔과 고통이 많이 나타나 있으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위로’는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59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의 ‘저희/그들에게’는 오역이다.

주제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고린도후서를 지배하는 분위기로 볼 수 있다.

호로쉐이드는 고린도후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생명’(leven)이라고 한다. 곧, 영광 받으신 구주로부터 신자들에게 주어지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명’(het waarachtige Christelijke leven)이다. 그 생명의 기초들이 설명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것을 일상생활의 실천 가운데서도 본다(헌금 모금). 고후 2:16; 4:10, 11, 12; 6:9, 16; 13:4와 같은 구절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살며, 성령을 통해 새 언약의 자유 가운데 산다(5:1이하). 그 생명의 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삶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12:20-21).⁶⁰

그러나 필자가 볼 때 ‘생명’은 고린도후서의 주제로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차라리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도 바울’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고린도후서 전체를 나타내는 주제로서는 미흡하다. 기껏해야 3-6장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다.

2) 씨름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 고민과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영혼을 녹이는 고뇌와 간절함, 사모함과 노심초사 등 바울의 인간적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두고 씨름하는 목회자의 참모습을 보여 준다. 그래서 호로쉐이드는 고린도후서에 대해 ‘씨름의 편지’(de brief van de worsteling)라고 말한다.⁶¹ 고린도 교회처럼

60 Grosheide, 2 Korinthe, 30f.

61 Grosheide, 2 Korinthe, 31.

바울이 그렇게 씨름한 교회는 없다.⁶² 물론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대해서도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그는 그 교회들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적었으며, 더 공개적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전부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강하게 권면할 때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바울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악화될까 위협받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취했던 조심스러움이 더욱 큰 정도로 여기에 돌아온다.⁶³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큰 고통과 기쁨, 낙심과 위로가 교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공격하는 많은 비난들과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도 씨름해야만 했다. 바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사방으로 옥여쌈을 당하였다.”(4:8) 그럼에도 그는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4:8-9).

11장 23-27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말한다. 그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다. 그 외에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28절).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빌 4:6)고 말한 바울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함으로 자기 속에 놀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다.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난관을 돌파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

62 이것은 고린도후서의 스타일에서도 드러난다. 바울의 어떤 서신도 고린도후서처럼 감정에 충동된 것은 없다.

63 Grosheide, 2 Korinthe, 31.

한다(고후 4:16). 이런 점에서 고린도후서는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는 한국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렌스키, 『고린도후서』, 채영철 역, 서울: 백합출판사, 1980.
- 박윤선, 『성경주석 고린도전후서』, 서울: 영음사, 1991 (17판).
- 변종길, “고린도후서 개관”, 『프로에클레시아』 23 (2013 봄; 제12권 1호, 프로에클레시아 신학회), 12-32.
- 변종길, 『신약 총론』, 대구: 말씀사, 2020.
- 아하로니, 요한-아비요나, 미카엘, 『아가페 성서지도』,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 Bernard, J. H.,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in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ed. W. R. Nicoll, III, Grand Rapids: Eerdmans, no date.
- Bijbel dat is de gansche Heilige Schrift, Houten: Den Hertog, 1980.
- Feine, P.-Behm, J.,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8. Aufl., Leipzig: Quelle & Meyer, 1936.
- Furnish, V. P., II Corinthians (Anchor Bible 32A), New York: Doubleday & Co., 1984.
- Godet, F.,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tr. by W. Affleck, Edinburgh: T. & T. Clark, 1894.
- Greijdanus, S., Bizondere Canoniek van de boeken van het Nieuwe Testament, II, Kampen: J. H. Kok, 1949.
- Grosheide, F. W., De eerste brief aan de kerk te Korinthe (CNT), 2e dr., Kampen: J. H. Kok, 1957.
- Grosheide, F. W., De tweede brief aan de kerk te Korinthe (CNT), 2e dr., Kampen: J. H. Kok, 1959.
- Guthrie, D., New Testament Introduction, 4th ed., Leicester: Apollos &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0.
- Harris, M. J.,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 Hodge, Ch., A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3.
- Keulers, J., De brieven van Paulus (De boeken van het Nieuwe Testament), I, Roermond en Maaseik: J. J. Romen & Zonen, 1953.
- Kruse, C. G., "The Offender and the Offence in 2 Corinthians 2:5 and 7:12," The Evangelical Quarterly 60/2 (April 1988), 129–39.
- Kümmel, W. G.,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rev. ed., tr. by H. C. Kee, Nashville: Abingdon, 1981.
- Lietzmann, H., An die Korinther I, II, ergänzt von W. G. Kümmel, Tübingen: J. C. B. Mohr, 1969.
- Martin, R. P., 2 Corinthians (WBC), 2nd ed., Grand Rapids: Zondervan, 1986.
- Reicke, B., Neutestamentliche Zeitgeschichte, 3. Aufl., Berlin: W. de Gruyter, 1982.
- Thrall, M. E.,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ICC), I, Edinburgh: T. & T. Clark, 1994.
- Van Spanje, T. E., 2 Korintiërs. Profiel van een evangeliedienaar (CNT-3), Kampen: J. H. Kok, 2009.
- Windisch, H., Der zweite Korintherbrief (Meyer Kommentar VI), 9.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4.
- Zahn, Th.,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3. Aufl., Leipzig: Deichert, 1906/1907 (Nachdruck 1994).

성경연구 제10-2호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본문비평 주기철 교수

고린도후서의 배경 김원 교수

고린도후서 해석과 강해 황원하 박사

고린도후서의 이슈와 난제 변종길 은퇴교수